

(2) 개최 일시, 장소, 강사명 및 청강자	
8월 30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수송소학교 강당 강사 한규복(韓圭復) 청강자 250명
8월 31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봉래소학교 옥상 강사 고영균(高永均) 청강자 300명
9월 1일 오후 2시 반부터 4시까지	효창소학교 강당 강사 조병렬(趙炳烈) 청강자 350명
9월 2일 오후 2시 반부터 4시까지	청운소학교 강당 강사 장홍식(張弘植) 종이연극 박노일(朴魯一) 청강자 300명
9월 5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교동소학교 강당 강사 남궁영(南宮營) 청강자 320명
9월 6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매동소학교 강사 양재창(梁在昶) 청강자 250명
9월 7일 오후 2시 반부터 4시까지	마포소학교 직원실 강사 황우찬(黃祐燦) 청강자 220명
9월 8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죽침소학교 강당 강사 조병렬(趙炳烈) 청강자 260명
9월 9일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방산소학교 강당 강사 양재창(梁在昶) 청강자 200명
9월 12일 오후 2시 반부터 5시까지	제동소학교 강당 강사 황우찬(黃祐燦)

9월 14일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청강자 300명 혜화소학교 강당 강사 조병렬(趙炳烈)
9월 15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청강자 200명 효제소학교 교실 강사 고영균(高永均)
9월 17일 오후 2시 반부터 5시까지	청강자 50명 덕수소학교 강당 강사 남궁영(南宮營)
9월 19일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청강자 200명 창신소학교 교실 강사 황우찬(黃祐燦)
9월 20일 오후 2시 반부터 4시까지	청강자 120명 직업학교 강당 강사 양재창(梁在禎)
9월 21일 오후 2시 반부터 4시까지	청강자 400명 창신소학교 강당 강사 장홍식(張弘植)
합계 16개소	청강자 3,850명

5. 가정강습회 개최

(1) 목적

조선부인의 생활개선의 일환으로 간이 가정요리법 및 세탁법을 지도하고자 한다.

(2) 일시 및 장소, 수강생 수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매일 오후 3시간씩	아현소학교 교실 인원 32명
10월 25일부터 27일부터 3일간	교동소학교 요리실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3시간씩	인원 36명 계성소학교 교실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3시간씩	인원 25명 방산소학교 교실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3시간씩	인원 30명 죽첨소학교 요리실 인원 35명

(3) 강사

경성부 사회과 촉탁 이정규(李貞圭)

6. 현금

(1) 금 10원

9월 20일. 하계부인 강습회 출석회원 유지의 각출금을 출정군인 위문으로 육군 애국부에 현금하였다.

(2) 금 53원

10월 12일. 총후후원강화주간 행사 중 출정군인 및 부상병 위문품대로 회원 유지의 각출금을 모아 육군 애국부에 현금하였다.

7. 팸플릿 발행(2회)

(1) 발행 종류

① 일본 부인의 부도(婦道) (동민총서 제15집)

대일본사회교육진흥협회 사카모토 마사유키(坂本昌之)

② 비상시국과 생활쇄신(동민총서 제16집)

사토(佐藤)생활관 상무이사 야마시타 노부요시(山下信義)

(2) 배부 수

① 『부도(婦道)』 2,170부

② 『생활쇄신』	1,482부
합계	3,652부

8. 현 교과서 기증

(1) 본년도 하계에 내습한 태풍 피해지역인 함경남북도 및 재만(在滿) 곤궁 아동에게 조선내 소학교 직원과 아동으로부터 기증받은 현 교과서를 총독부 조선교육회와 외무부에 의뢰하여 각각 발송하였다.

(2) 기증학교

경기도	경성 교동공립심상소학교 경성 용강공립심상소학교 경성 방산공립심상소학교 평택군 진성공립심상소학교 경성 청계공립심상소학교 경성 일출공립심상소학교 고양군 지도공립심상소학교 수원공립고등소학교 경성 창신공립심상소학교
황해도 황주군	흑교공립심상소학교 송화군 송화남공립심상소학교 연백군 해월공립심상소학교
강원도 통천군	임남공립심상소학교
황해도 연백군	송봉공립심상소학교 해주군 해송공립심상소학교
강원도 양양군	인구공립심상소학교
황해도 봉산군	영천공립심상소학교 신계군 마서공립심상소학교
강원도 금화군	창도동공립심상소학교 원주군 신림공립심상소학교
황해도 장연군	해안공립심상소학교

	곡산군 동촌공립심상소학교
강원도 양구군	해동공립심상소학교
황해도 신천군	문화공립심상소학교
강원도 춘천군	내평공립심상소학교
황해도 벽성군	동강공립심상소학교
	벽성군 천결공립심상소학교
	은율군 장통공립심상소학교
	서흥군 용평공립심상소학교
경기도 김포군	금단공립심상소학교
황해도 평산군	마산공립심상소학교
강원도 평강군	기산공립심상소학교

이상 32개교로부터 합계 9,666책의 기증을 받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냈다.

함경남도 2,602책
 함경북도 2,937책
 만주국내 4,127책

9. 독학통신 발행(13회)

동민회 교육부 발행 강의록은 기관지로서 매월 발행되는데, 강의록 강독자 및 강의록
 찬조원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매월 발송부수는 5,600부, 연간 발송부수는 61,600부
 이다. (8월은 휴간)

10. 중국어강습회 개설계획

동아민족연합의 기초를 견고히 쌓고 덕성을 함양하여 시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실용중국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본회 회의실에 제반 설비를 갖추고 적당한 강사 2명의
 승낙을 얻어 6개월을 한 회기로 매일 야간 2시간씩 수업할 예정이다. 지금 허가신청 중
 이다. (12월)

1938년 12월 25일 인쇄(비매품)
1939년 1월 10일 발행
경성부 화천정 6번지 동민회
발행인 이노우에 나오타로(井上直太郎)
경성부 태평동 2정목 1번지
인쇄인 하리모토 츠네타로(播本恒太郎)
경성부 태평동 2정목 1번지
인쇄소 대해당인쇄주식회사
발행소 경성부 화천정 6번지 동민회

1939년도 동민회 수지결산서, 1939년도 동민회 예산서 (생략)

〈출전 : 法人設立並監督二關スル件, 1939년 5월 15일, 『法人事業報告綴』,
1939~1940년, 국가기록원 소장〉

7) 동민회 강령(1940)

1. 조국(肇國)의 정신에 따라 황국신민의 결합을 견고히 하여 황도의 선양을 기한다.
2. 실질강건(實質剛健)의 기풍을 양성하고, 근면역행(勤勉力行)으로 사회교풍의 쇄신을 기한다.
3. 동양도덕을 발양하고 아시아 민족의 융합을 도모하여 동양영원의 평화를 기한다.

〈출전 : 同民會綱領 『創氏記念名刺交換名簿』, 同民會本部, 1940년〉

2. 주장과 활동

1) 최정호(崔定浩), 내선융화론(1~2)

- 무이해와 가장(假粧)을 배격하자

‘기자 왈’이 논설의 옳고 그름은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내가 통독한 소감을 말하면 용어를 사용하는 데 약간 문제점이 있고, 부분적으로 감정론이 가미되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서로 간에는 입장이란 것이 있다. 대체적으로 신중한 논조에 동정과 경의를 표한다. 특히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일본인은 항상 주의하여 조선인에게 오해와 의심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고 싶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 이상, 어쩔 수 없이 사사건건 감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뿌리가 형제인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면 서로 격의 없이 경애하고 모든 일을 논의하여 공창(共昌)의 길로 나가고 싶다.

나는 원래 배움도 적고 재주도 없지만 오늘날 분규(紛叫)가 극에 달한 조선과 일본 문제에 대해 그 선후책을 이야기해야겠다. 한 집안의 쇠함과 성함은 자손의 현명함에 따라 예단할 수 있듯이 국가의 우열은 사회의 원동력인 청년의 굳셈에 달려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 조선과 일본 문제는 양 민족 존망의 기로일 뿐 아니라, 앞으로 유색인종 전반의 운명과도 관련된 커다란 문제이다. 더구나 진정으로 동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염려하는 일은 그 좋은 점을 칭양하기보다 결함을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데에 있다. 이에 나는 여기에서 청년의 중책을 통감하여 한 가닥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을 피력하여 시정당국 및 우리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진실한 충고를 해주고 싶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혹시 무익할지 모르나 나의 미약한 기대와 바람을 현명하게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를 받아 각국 모두 회복 창조에 급급하고, 여기에 인종적 경쟁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 조선 민족과 일본 민족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내외 지사(志士)로부터의 많은 탁론웅변(卓論雄辯)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갑론을박을 통해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상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족이 서로 싸우고 형제지간의 불화를 연출하여 영원하고 커다란 계획을 그르치려는 것에 통탄해마지 않는다.

조선과 일본 문제를 논하는 수단과 방법은 예전부터 한 가지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근본을 탐구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만을 논하거나 형식에 매달리는 등 감

정에 치우쳐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원래 동물은 감정적인 존재로 감정에 휩싸여 사물의 성패와 영리함과 어리석음을 판단하기 십상이다. 이성의 계발이 무너지고 무이해한 판단으로 서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늘날 조선 민족과 일본 민족은 시세와 자기와 타인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아무런 가면 없이 실질적이고 온건한 태도로 인류의 본령인 공존공영의 실질을 완수해야 한다. 현 시점의 근본적인 조선과 일본 문제의 해결책은 단순하지만 바로 여기에 있다고 판단한다.

기록이 명백하지 않은 고대사 이야기는 여기에서 논할 필요가 없다. 조선 500년의 역사는 조선 민족으로 하여금 옳음과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뇌력(腦力)과 지력(智力)을 떨어뜨리려 고루와 몽매로 약화시켰다. 조선은 유사 이래 권리쟁투를 유일한 일로 삼았다. 항상 계획하는 것은 동족과 동료를 음해하고 비방하는 일이며,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욕망이 자자손손 유전되어 관습적 민족성이 되었다.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봉당사론과 권리쟁투의 혈투사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역사를 계승한 현대의 조선인은 지금도 고질병에 중독되어 항상 그 행동이 뒤떨어진다. 또한 염치가 무엇인지 모르며 낡은 인습을 고집하고 고치지 않아 비굴하다. 최근의 세계풍조에 각성한 조선 민족은 고유한 상적성(相積性)과 배타적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오늘날은 문명과 야만의 우열에 따라 종족적 존멸의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문화의 수용에 노력한다고 하지만 유전 근성을 토대로 받아들인 약간의 신지식은 반대로 이론만을 좋아하고 허영을 숭상한다. 명예와 이익에만 급급하고 실행에는 거의 염두를 두지 않아 실력에서 낙오자가 되었다. 세계에서 조선의 지위는 극동의 평화와 직접 관계된다. 일한병합은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고 동문선진(同文先進)의 일본과 서로 제휴하여 아시아 민족 존멸의 중책을 함께 떠맡기 위해 실현되었다.

일본은 우라가(浦賀) 포격으로부터 미몽(迷夢)에서 깨어났지만, 존왕양이(尊王洋夷)의 알력은 조선의 그것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일본에서는 봉당사론과 계급적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의 문명을 흡수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 세계에서 오늘날과 같은 큰 업적을 올렸다. 그 중에서도 과단실행(果斷實行)하는 인물은 내부 싸움에서 일신(一身)의 이해를 바라지 않았고, 대세(大勢)를 이해하여 멈추지 않는 기개(氣概)로 역전고투(力戰苦鬪)를 계속하였다. 만약 일본이 당시 세계의 대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로지 양이로 군국(君國)만을 고집하는 데 열중했다면, 극동에서 일본의 현상 또한 추측컨대 어떠했을까? 일본과 조선의 문명과 야만의 정도는 첫걸음의 차이가 천리의 격차를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무튼 어떤 나라를 불문하고 통호(通好)만을 서로 요구하는 과거 시대에는 국부적인 자기 내부 경쟁으로 높고 낮음의 시비를 가늠했지만, 지금은 인종적

경쟁을 바탕으로 제반 실력에서 세계적으로 대적할 각오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에서도 극동의 내선 양 민족은 아시아 민족의 존멸과 직결된다는 중책을 통감하여 투쟁에 몰두해야 한다. 나아가 내선 양 민족은 병합의 정신에 합치된 결과를 추구하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은 병합 이후 이미 15여 년의 기간 동안 체험한 경로(經路)의 선악을 취사선택하여 장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 내선융화상 그 장벽의 근본을 탐구하여 반성을 촉구하고 제반 문제의 철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초미의 급무이다. 조선인의 총독정치 및 일본인에 대한 불평의 정도는 독립소요⁷⁾에서 유감 없이 폭로되었다. 그 당시 일본인 유지로서 직접 독립운동에 동감하는 자는 없었지만, 총독정치 및 일본인의 결합을 비난하는 자는 결코 적지 않았다. 과거의 결합을 깨달아 비난하는 사람조차도 소요 이전에는 거의 시정 및 일본인의 조치(措置)로 시대에 적응하여 이에 아첨한 것을 보면, 일본인이 조선 문제에 대해 얼마나 고의적이고 무성의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병합의 정신은 양국 원수의 조서(詔書)에 잘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당국은 시의(猜疑)의 눈으로 조선인에게 군림하고 항상 명분의 정도를 운운하였다. 시정의 첫째는 차별이 없어지는 것임도 불구하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반목과 시의는 날로 커져 극도에 달하였다. 이 결과 독립운동은 실제로는 조선인 전반의 의사를 대표하여 발동된 것이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시정 10여 년 동안의 치적으로서 물질방면에는 다소 발달했다고 말하지만, 정신방면에서는 완전히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총독정치는 내선융화 운운의 표어만을 조선 통치의 요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양 민족의 장래를 위해 실로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무릇 정치를 행하는 데는 먼저 그 민도와 감정, 풍습을 연구하여 이에 적합한 실제적 시정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일시적으로 우롱하고 일부 사람을 영구히 속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모든 사람을 영구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식적이고 시의적인 조선 정책이 영속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왜냐하면 고금동서를 통해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합리는 이에 대항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독립소요 이후 총독정치는 과거의 결합에 비추어 문화정치를 선명(宣明)하고 시정방침으로 근본적 개혁을 내세웠고, 조선과 일본의 유지 또한 들고일어나 시폐(時弊)를 바로잡아 동화공존의 내실을 완수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정말로 시대의 사조에 맞는 합리적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원래 법이란 사물(死物)로 사활의 수단은 사람에게 있다. 그 목적만이 미려(美麗)하고 그 실행에서 완급과 본말을 잘못하거나 근본적인 해

7) 3·1 운동.

결책을 협력 실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논의는 단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양 민족의 앞길에 간격이 더 크게 벌어져 결국 국가의 대계(大計)를 그르칠지도 모른다. 이론만 그럴듯하고 실행을 멀리하는 것, 사물의 판단을 둘러싸고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는 것은 조선인과 일본인 공통의 근성이다. 이 때문에 조선인과 일본인은 행동의 대소경중을 논하지 않고 서로를 양해하지도 않는다. 더욱 반목만이 증폭되어 동화정책의 실천을 완수할 수 없다.

조선인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떤 계급을 불문하고 관습적 근성을 토대로 삼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이해심이 없다. 사리에 눈이 어두워 이론만 그럴듯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여 실행해야 할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그뿐 아니라 일의 성패를 실력의 정비례로 추구하지 않고, 항상 가장적(假粧的)이고 사이비적인 언동을 일삼는다. 이름을 팔아 이익을 구하는데 급급한 도배(徒輩)일 뿐이다. 대세를 이해하거나 시사문제를 지도 해결하겠다고 스스로 나서는 자조차도 지금 내가 바라보건대 여전히 권문(權門)에 빠져 시세에 아첨하고 교언영색(巧言令色) 하나에만 영합한다. 이런 자들이 시대의 선각자로서 동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은 하늘에 건물을 세우겠다는 어리석은 일로 실로 불쌍한 생각이 들어마지 않는다. 무이해(無理解)와 가장(假粧)은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동여매는 철쇄(鐵鎖)이다. 조선인은 구투(舊套)에 사로잡히지 않고 제반 실력을 쌓아 옳음과 그름을 깊이 탐구하여 진퇴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시세에 거슬리지 않는 실질온건한 기풍으로 동화공존의 실질을 완수해야 한다. 즉 이것은 지도와 인도의 임무를 담당하는 통치당국과 일본인의 반성과 독려를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

일한병합은 혼연일가(渾然一家)가 되어 경중(輕重)의 차별 없이 균등하게 폐하의 적자(赤子)로서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은에 함께 몸담가야 한다. 그런데 시정 당국은 표면적으로는 항상 이러한 취지의 선전에는 노력하면서, 실제적인 정치에 이르러서는 조선인을 위협분자로 인식한다. 조선인을 시의(猜疑)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앞뒤의 구별 없이 모두 임시방편적이고 고식적인 태도로 나온다. 이 때문에 조선인의 사이비이면서 가장적인 언동을 조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언제나 그 결과를 보고 선후책의 강구에만 급급하다. 이는 그 본말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시정 당국이 이렇다면 그 밑에 있는 조선인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본인은 조선인에 대해 일종의 특권과 우자(優者)의 위엄을 강화하면서, 입으로는 항상 내선융화와 복지증진을 내세워 조선인에게 스스로 융화를 추구하는 데 노력하고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기세(氣勢)를 보인다. 일본인은 조선인이 이의 영합에 힘써 요행히도 공명을 얻으려는 무리를 선각자로 삼고, 이에 반대하는 자를 불명분자라고 이름 붙인다.

그 반대 점은 다를지라도 그 결과는 가장무실(假粧無實)하여 세간의 인심을 해친다는 점은 전혀 다르지 않다. 유래 일본인이 불령선인(不逞鮮人)을 논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총독정치 및 일본인에 대해 반대와 불평을 주장하는 자로서 대개 조국의 회복을 몽상하여 과격한 행동을 드러내는 자라고 단정한다. 하지만 원래 불가능한 일에 속하면서 참된 정성으로 평소의 뜻에 목숨을 바치는 것은 피아 모두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그 목적의 시비를 논할 필요가 없고 이름을 얻는 것을 일삼는 조선인의 행동은 어떻게 말하더라도 결코 시정의 정신과 내선융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수단방법에 분개하여 반국가적 사상을 품거나 혹은 그 경우에 따라 사이비적인 불령언동을 일삼는 자와 구별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조선인으로 하여금 총독정치에 감복시켜 내선융화의 철저한 완성을 도모하고 양 민족이 그 이상으로 삼는 행복을 함께 향유하게 할 수 있을까?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통치당국이 이번 시정방침에 근본적 개혁을 가하여 조선인에게 의혹의 마음을 없앴과 동시에 조선인과 일본인의 반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실행이 없는 이론은 언제라도 공론에 빠져 사라질 뿐이다.

〈이상 (1)〉

진실로 오늘날 문명국민이라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의의 있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의 그 어떤 나라도 헌법을 제정하여 통치자 및 통치자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메이지(明治) 초년부터 유럽문화의 파급과 민본사상의 보급에 따라 민선의원설립운동이 일어났다. 국회개설을 정부에 압박하여 관민 모두 많은 파란을 거쳐 결국 1889년에 헌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일본 국민은 동시에 관료정치 및 계급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인격자로서 커다란 은혜를 얻었다.

그런데 조선은 전패(戰敗)의 치욕으로 일본과 성하지맹(城下之盟)을 맺은 결과 병합에 이른 사실은 내외가 공감하는 바이다. 즉 여러 번 말한 바와 같이 평등공존의 우의로 세계적으로 담당할 중책을 함께 짚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당국은 조선인을 어느 특수부락 정도로 취급한 결과,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인의 번영에만 부심한다는 의혹을 품게 만들었다.

메이지 초년 사이고(西郷) 등의 정한론은 수호 거절의 무례를 꾸짖는 죄를 묻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선을 정복하여 도요토미(豊臣)의 응대한 계획을 계승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웃나라와의 우의와 내치의 긴급함을 이유로 정한론을 파열다고 하지만, 그것은 주로 당파 간의 알력에 불과한 것이다. 메이지 초

년과 오늘날의 정세는 문야(文野) 및 풍설(風說)의 정도에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50년에 걸친 메이지의 문화발전과 서력동점(西勢東漸) 과정에서 오늘날 정치적 표어인 내선융화와 일시동인은 정말로 시대에 적합한 주장이다. 하지만 그 실제적인 조치는 항상 메이지 미개시대의 정한론 정신의 암류(暗流)를 계승하려는 경향이 많다는 것은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일한병합 당시는 한편으로 의구심이 조선 내에 넘쳐 흘렀고, 민심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때로는 민도를 운운하면서 제반 실력상의 권리의무의 수행을 주장하는 위험한 시대였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조선인 일부 인사 중에 시대적 실력을 구비한 인물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을 의심하여 낡은 인습을 고치지 않고 더구나 형식적인 표어만으로 민심안정을 운운하려는 무기로 삼는 것에 나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동서 그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국민 전반의 정도를 표준으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고, 또 그 문야(文野)의 균등을 도모하는 것이 자연적인 추세이다.

지금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나쁜 요소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개재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를 보고 열 개를 추측 판단하는 것은 식자가 취할 바가 아니다. 몸 안의 하나의 병독은 결국 열 개의 지병을 연발시킨다. 만약 이를 정말로 고치려면 몸 안의 병의 뿌리를 고쳐야 한다. 지병을 고치는 데에만 부심하면 효과를 거둘 수 없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는 당연한 이치이다.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지엽적인 문제만을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오늘날 조선과 일본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려면, 조선인도 일본인과 동일한 제국신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한다. 참정권을 부여하여 헌법의 은택을 향유한 다음에야 비로소 내선융화와 일시동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정치의 요점은 백성의 소리를 듣고 인화를 얻는 것에 있다. 인화를 벗어나 형식적이고 만리장성적인 시정은 합리에 적합한 영원한 대책이 아니다. 당국에서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 관민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민정시찰관 혹은 기타 관료가 항상 지방을 순회하여 재야 유지들과 만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시정방침의 자료로 삼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조치는 정말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재야 유지라는 자들이 정말로 민의를 대표할 만한 참된 인사인지는 정말로 의문이다. 왜냐하면 조선인의 근성은 각 계급적인 암투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아 서로 이해 조화하여 강우(強優)를 의지하지 않고 약열(弱劣)을 가없이 여기는 미덕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관권에 아부하여 몽매무지한 인민을 이용하여 거짓 충성을 가장하고 거짓 은혜를 베푸는 매명모리(賣名謀利)한 무리들이다. 인민은 실제로 악정을 원망하기보다 이들 무리들을 증오한다. 상부의 의견이 아

래로 통하지 않고, 하부의 정황이 위로 전달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모든 조치가 이러하다면 표면상의 시비를 따져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면자(假面者)는 속출될 것이다. 현재 일부 조선인은 개인과 단체의 구별 없이 배일의 가면으로 가장하여 무고한 언동을 일삼고 있다. 일부 몽매한 조선인은 이들이 조선을 우려하는 유일한 지사인 것처럼 바라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직접 이들에 대한 괴멸책을 강구하지 않는다. 민심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으로서 항상 고식적인 회유수단으로 나온다. 이는 가장무실(假裝無實)한 분자를 조장할 뿐이며, 시정에 대한 조선인의 의혹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당국은 신속히 이러한 가장분자의 괴멸을 단행해야 한다. 또 그들에게 시세를 이해시킴으로써 사이비적인 언동을 일삼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조선과 일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일부 열의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관찰할 수 있도록 관민일치의 반성과 격려가 필요하다. 항상 서로 제후하여 하루라도 빨리 그 달성을 도모해야 한다.

재선(在鮮) 일본인의 언동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시정당국의 선전기관이자 수행자로서의 본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는 일한병합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노력하는 열성적인 인사도 있지만, 화려한 이론으로 시세에 아부하는 자도 있다. 그 실제 정신은 조선이 마치 일본에 병합된 것처럼 고통하여 직접 전승자의 태도로 나온다. 피아의 감정과 풍속을 존중하고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상호융화의 결실을 거두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조선의 감정과 풍속이 그 어떤 것을 불문하고 모두 일본의 그것에 비해 비천한 풍속이라 하여 조선의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것이 전혀 없다며 융화의 내실을 거두려하지 않는다. 일본인은 조선인이 일본의 감정과 풍속에 가까워지려고만 한다는 오해를 품고, 일부 조선인은 여전히 이를 모방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실로 몰이해의 극치이다. 현재 일본의 명사 중에는 구미에 심취된 일본인을 통론하기도 한다. 그들은 경조부박(輕佻浮薄)하고 변화를 좋아하여 일본 고유의 미풍을 경시한다. 이러한 현상을 경계하면서 국민의 자존중심의 소멸을 우려하는 자가 적지 않다. 숭외병(崇外病)에 걸린 일본인조차 조선인에 대해서는 자기의 감정과 풍속이 그 무엇이든 최고로 뛰어나고 아름답다고 자인한다. 조선인도 역시 일본인의 숭외병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감정과 풍속을 아직 따라갈 수 없다고 잘못 생각한다. 오자키 가쿠도우(尾崎愕堂)⁸⁾이 말하길 “원래 국가의 강약의 원인은 의복과 음식 등과 같은 작은 것에 있지 않다. 인민의 지식과 기력, 절약과 검

8) 원래 이름은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 1858~1954), 일본의 정치가, ‘憲政の神様’, ‘議會政治の父’로 불린다.

소에 있다. 민지(民智)가 정말로 발달하여 절약과 검소를 선미하고 스스로 믿으며 용왕 매진하면 그 나라는 필연적으로 강대해진다. 국가가 강대하다면 이전에는 사람들로부터 조소를 받던 의복과 음식, 기타 풍속과 관습도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 정말 그렇다. 개명의 선후는 있다지만 그 개명의 정도로 고유의 미풍까지 등한시하는 것은 문명국민이 취할 바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여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조선과 일본은 원래 동문종족으로서 감정과 풍속이 완전히 다르지 않다. 물론 다소간의 차이로 인한 장단점도 있지만, 상호 깊은 이해를 통해 마주 대한다면 어렵지 않게 융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일본인 여러분부터 솔선하여 조선의 감정과 풍속을 연구하고, 그것이 나쁘지 않다면 이의 실행에 노력하여 상호 온정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

경성(京城)과 같은 중심지에서는 직업적이지만 조선과 일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방의 정황을 관찰해보면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는 식자의 예상 밖에 있다. 일본인의 대부분은 항상 한 걸음 앞선 사람으로서 특권계급이라고 자임하고, 자신이 행하는 일은 모두 고상하고 훌륭한 반면 조선인은 모두 무지몽매하고 만사가 수준이 낮은 마치 패잔민(敗殘民)과도 같아서 직접 인민과 접촉하는 하급관청에서조차도 그러하며 내선융화라는 말은 조선인의 문화 향상을 통해 조선인 스스로 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선인 또한 이러한 존대적(尊大的)이고 차별적 행동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운명으로 생각하여 자포자기의 감정을 품는다. 더구나 이 때문에 상호간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 어떠한 일이라도 그 시비를 논하지도 않고 오해한다. 상호 이해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대개 국민의 품성에는 각각 우열의 차가 있지만 감정은 동일한 것이다. 이해와 온정이 있는 교제는 지우(智愚)의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부(天賦)의 이성에 의한 박애정신을 지니고 있다면 내선융화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일본인 여러분은 지금 여러 분야에서 조선인을 사실상 압도하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내선융화의 철저한 실행을 도모하여 양 민족의 최종적인 행복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먼저 여러분부터 공정하고 양보하는 태도로 조선인을 대하여 오해를 풀어야 한다. 최후의 행복선상에 함께 서야 할 양 민족이 국부적인 세공론(細工論)으로 시종 일반적이지 않은 약간의 사례나 눈앞에 보이는 고식적인 이론으로 사물을 바라본다면, 이는 인종적인 경쟁이 극심한 오늘날 우리가 취할 바가 아니다. 어부지리의 상황에 이를 뿐이다.

내선융화는 시정의 근본적 개혁과 더불어 먼저 일본인 여러분의 반성과 역행(力行)을 통해 조선인의 의혹을 해소하고 속마음을 헤아려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야 한다. 상호간의 이해와 온정이 있어야 비로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단언한다.

양자의 장벽을 허물어 철저한 융화를 도모하고, 관민일치를 통해 시폐(時弊)를 고쳐 극동에서 양 민족의 중책을 완수하고자 조선과 일본의 유지가 동민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이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그 선명(宣明)하는 바는 현재의 실정에 매우 적절하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사상이 통일되지 않고 쓸데없이 서로 반목하여 대국(大局)을 바라보지 않고 사소한 공론이 만연하는 오늘날, 동민회는 실로 어두운 행로를 밝히는 나침반과도 같다. 마지막으로 동민회의 융성을 기원하면서 본인도 그 강령에 따를 것을 다짐한다.

〈이상 (2)〉

〈출전 : 崔定浩, 內鮮融和論(1~2), 『同民』 7호, 9호, 1924년 12월, 1925년 2월〉

2) 이승현(李升鉉), 일선융화는 실행방법 여하에 달려있다

나는 배움도 적고 재주도 없어 말하는 바가 철저하지 못하지만, 말단의 동민회 이사로서 우견(愚見)을 피력하니 널리 양해를 구한다.

이승현

일선(日鮮)의 병합은 동양의 대세 및 동종동문(同種同文)의 관계에서 성립되었다. 이는 무력으로 정복한 것과는 그 의의가 다른 특수한 역사상 미증유의 사적(事蹟)으로 이후 15년의 세월을 지나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당국은 많은 고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제반 시설에 대한 주도면밀한 경영을 계속한 결과, 실로 격세(隔世)의 개선과 진보를 이루었다. 하지만 민심 융화의 측면에서는 수많은 주장을 펼치고 광범한 선전을 계속했지만, 아직 철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는 내가 가장 우려하는 바이자 앞으로 깊이 연구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양 민족 융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오늘날, 이의 실행방법에 따라서 사상의 변천에 영향을 바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그 형식과 이론은 과거에 속하는 것으로 그 실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혼인의 공통(共通)에 의한 민족 가정적 결합
2. 학교의 공학(共學)에 의한 정신 지식적 결합

3. 사업의 공영(共營)에 의한 재정 경제적 결합

첫째는 그 단서의 발현(發現)을 관찰해야 하지만 민간에서의 정식 결혼은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를 싫어하여 양자는 결혼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인륜의 대사를 비밀리에 거행한다. 이를 공식적으로 장려하고 실행해야 한다. 둘째로 학교의 공학(共學)도 그 사례는 있지만, 정신상의 일치 결합이 결여되어 있다. 이를 무차별 무조건 해방해야 한다. 셋째로 사업 공영 또한 합동으로 경영하는 사례는 많다. 하지만 경제 및 재정의 실권과 지식 경험의 차이로 인해 완전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유감스럽게도 발달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를 가급적 협조하고 지도하여 진정한 공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명한 우리 총독과 정무총감의 영단으로 조선인 등용이라는 특례의 길이 열려 행정관청의 중요지위를 소수의 조선인에게 개방하였다. 이는 정말로 칭송해야 할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미봉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아무리 조선인이지만 정치경제상의 지식과 능력 및 유학장행(幼學壯行)의 두뇌를 지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종래 이렇게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은 오산이다. 위에서 말한 3개 조의 철저한 실행은 공존공영의 효과를 올릴 것이고, 동종(同種)의 행복 및 동양평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옛말에 “도끼 자루를 잡고서 도끼 자루를 찍어내되 그 법은 멀지 않도다(執柯伐柯其則不遠)”⁹⁾라는 말이 있다. 사람을 다스리는 데 피아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출전 : 李升鉉, 日鮮融和は實行方法如何に在リ, 『同民』 제8호, 1925년 1월〉

3) 이상하(李相夏), 마츠나미(松波) 씨의

『내선융화요체(內鮮融和要諦)』를 읽고서

경상북도 이상하

나는 내선융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천열(淺劣)한 일개 조선인이지만, 종래부터 이를 자신의 책무로 삼아 다방면에서 나름대로 활동한 사람이다. 이번 마츠나미 씨의 기탄없는 충언에 대해서는 정말로 동감이다. 생각해보면 병합 이후 17년이 지난 오늘날,

9) 『詩·幽風·伐柯』.

내선용화를 운운하는 문제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주장이 아닐까? 과연 우리 동민회 강령 제1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국(大局)에 고처(高處)하여 내선용화의 철저한 실행을 도모하는 우리 동민이라면, 아무런 문제없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세상의 대세에 비추어 큰 범위의 커다란 이익을 깨달은 이상, 조상으로부터 자손에 이르는 영원한 행복을 도모한다면, 소위 형제는 모습이 다를지라도 그 어미는 같아 자연스럽게 융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존경쟁이 격심한 오늘날, 인의도덕(仁義道德)은 형식적인 표시에 불과하고, 사람들은 오로지 사리사욕에만 몰두하여 온몸을 바치는 상태이다. 이러한 소국적(小局的) 즉 개인적 현상에서 바라보면 내선용화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일본 내부의 융화나 조선 내부의 융화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마츠나미 씨는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경의(敬意)가 부족하고, 또 일본인은 일본인이라는 우월권으로 조선인 유식자도 무시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말로 이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조선인으로서도 공자의 유훈(遺訓)에 “가난하면 원망이 없을 수 없다”고 말한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 불평이 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가령 유식자 계급이더라도 진정으로 대국적 요령(要領)을 품고 동민을 위해 즉 상근일가(桑椹一家)를 위해 동양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회봉사를 하는 자가 2천만 중에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항상 내 자신은 조선인이고, 일본인은 선진자(先進者)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자는 모든 것에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대우 등은 전혀 고맙지 않다. 천 명의 논리자보다 한 사람의 실행자가 필요하다. 개인 간의 융화는 문제가 아니다. 가족 간에도 때때로 불화가 있는 법이다. 다만 바라는 바는 춘풍이 부는 곳, 여름에 비가 내리는 곳에서 우리 민초가 모르는 사이에 화기융융(和氣融融)한 시기가 도달하면 그것이야말로 영구적인 평화의 도래라고 믿는다. 그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출전 : 李相夏, 松波氏の內鮮融和要諦を讀んで, 『同民』 제33호, 1927년 6월〉

4) 이태성(李泰聖), 내선용화를 하와이(布哇)에 선전하다

하와이 호놀룰루의 국제 그리스도교 조선인부 주사 이태성 씨가 9일 밤 경성에 들어왔다. 그는 하와이에 20여 년간 체제하면서 하와이 정청(政廳)의 교육고문으로 촉탁된 인격자로 이번 일본과 조선의 실상을 시찰하기 위해 귀선하였다. 하와이에는 민족운동

의 거두가 응거하고 있는 관계상,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감정이 현저히 악화되고 있다. 그는 일본에서 조선과 일본 협력의 상황을 보고 아주 감명을 받았다. 하와이로 돌아간 후에는 이 실상을 선전하고 국외의 조선과 일본 동포의 융화 협력을 제창하여 국위의 진흥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어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단지 수입초과의 추세를 돌려 수출초과에 이르는 것은 독일 국민의 노력과 근기(根氣)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체로 훌륭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평화극복 후 외국, 주로 미국에서 150억 만의 자본을 수입하여 거국의 부흥으로의 길에 정진하였지만, 오늘날까지도 쇠퇴하는 형세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근래 세계적인 불황과 자국의 재정불안 때문에 외자 수입은 거의 사절하고 있어서 금융은 점차 궁박함이 더해지고 금리는 유럽 각 국 중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인은 견인역행(堅忍力行)하는 국민이어서 오로지 부흥의 정진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독일은 온갖 어려움을 참아내어 흥융(興隆)의 시대가 재현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모양입니다만 과연 독일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위와 같은 고달픔의 행적으로부터 상상하면 아마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아메리카는 어떤가하고 말씀드리자면 아메리카는 대전(大戰) 중 거액의 자금을 흡수하여 굉장한 채권국이 되었고 게다가 또 거대한 자금을 모아서 정화(正貨) 보유액에서도 30억 달러가 넘는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자비한 불황의 바람은 가차 없이 아메리카에도 휘몰아쳐서 국가를 모두 슬픈 상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유복한 지방에서는 돈이 있는 곳에는 넘치도록 많습니다. 한편 빈궁한 곳에서는 계속 곤란해지고 있는 바람에 극단에서 극단으로 빈부의 격절(隔絶)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편재가 한층 현저하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작년은 1326개의 은행이 파산하여 약 9억 달러의 예금이 지불 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얼마나 불황이 심각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행은 주로 농업 대부(貸付)를 해 왔는데 대부분 사실에 비추어본다면 아메리카의 농업도 역시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서부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는 농업지대로서 또한 산유지로서 천혜(天惠)의 고장이고, 미국 내에서도 비교적 불황의 영향이 적은 지방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지방에는 일본인이 14만 가까이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농업 종사자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2, 3년 내 농업의 불황이 계속되어 특히 작년에 들어서는 한층 심하여 농가라는 농가는 어디도 수지가 맞지 않아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야채도 과실도 가치가 없어져

폭락했기 때문에 수확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양을 썩게 내버려두었습니다. 그 지방은 노동력 부족 때문에 임금이 대단히 높아서 하루에 3달러 50센트(약 7원) 정도로 수확이 매우 바쁜 계절에는 5달러라도 내지 않으면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그렇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여 모처럼 수확을 해 보았자 수지가 서로 맞지 않아서 결국 비용 때문에 도산하게 되어 결국 썩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일본의 농산물은 안전하다고 해도 아직 상당한 가격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일본의 사정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는 선후책으로 과수 등은 어느 정도 잘라버려서 철저하게 생산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소간 사정이 극도로 나쁘지만 일부분의 사건으로 전체적인 것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에는 자본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불황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재정상으로는 세입의 결함도 많고 재정난을 면할 수 없지만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 의회에서는 전시(戰時) 이래 연금 7억 달러의 일시불 방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국고 재원이 불충분함을 사유로 하여 이를 환부하였습니다만 올해 3월 의회가 다시 이를 가결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곧 지불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미국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으로 매우 심각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수출입 무역에서는 여러 해 계속 수출 초과라는 좋은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 게다가 거대한 채권 수익과 그 밖의 무역 외에 거두어들인 대금도 많이 있어서 정가(正價)가 계속적으로 증액의 형세를 보여 풍부한 자금을 더욱더 풍부하게 되도록 하고 있지만 재계의 불안으로 앞에서 말한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확실히 단속하여 쉽게 돈을 내놓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금융은 더욱 곤란한 사정입니다. 현재 각국의 자본 수요자는 뉴욕에 모여서 획책하고 있지만 한결같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대만수력과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당분간 성립의 가망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출전 : 李泰聖, 內鮮融和を布哇に宣傳する, 『同民』 제82호, 1931년 7월〉

5) 척식성관제반대기성회 타합회에 관한 건

경본고비(京本高秘) 제2403호

1929년 4월 23일

경성 본정(本町)경찰서장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전(殿)

척식성관제반대기성회 타합회(打合會)에 관한 건

대(對) 4월 19일자 본호 원보(院報)

4월 21일 박영철(朴榮喆) 집에서 조직된 척식성관제반대기성회는 운동과 기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2일 남미창정(南米倉町)에 있는 경성구락부에서 타합회를 개최하였다. 출석자는 갑자구락부의 나리마츠 미도리(成松綠), 이케다 초지로(池田長次郎), 조병상(曹秉相), 동민회의 간바라 히사시로(蒲原久四郎), 고스기(小杉溢人), 와타나베 데이이치로(渡邊定一郎), 국민협회의 김명준(金明濬), 김환(金丸), 대정친목회의 데라오 모사부로(寺尾猛三郎), 전성욱(全聖旭), 교육협성회의 오태환(吳台煥), 최덕(崔憲) 등 12명이다.

와타나베를 좌장으로 박영철(朴榮喆)의 집에서 조직된 척식성관제반대기성회는 처음에는 갑자구락부, 동민회, 국민협회, 대정친목회의 4단체를 포함하기로 했는데, 이후 교육협성회로부터 참가신청이 있었다. 또 유림단도 방진□(方辰□)가 타합회의 석상을 방문하여 각지의 유림단 지부로부터 성원의 전보가 도착했다며 본회 가맹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협성회는 가맹을 허락하고, 유림단은 다른 목적단체이므로 운동의 장래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거절하였다.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성욱(全聖旭) : 4단체 이외에 교육협성회, 유림단의 참가 신청이 있는데 어떠한가?

간바라(蒲原久四郎) : 동민회는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이 무효하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조병상(曹秉相) : 교육협성회는 가맹시켜도 좋지만, 유림단은 다른 의혹을 낳을 염려가 있으므로 가맹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케다 초지로(池田長次郎) : 본회는 누차 척식성(柘植省) 설치반대를 주장하는데, 관

제에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설치에 반대하는 것인가?

전성욱(全聖旭) : 유림단은 지방에 다수의 지부를 갖고 있다. 이를 가맹시키면 목적 관철에 좋지 않은가?

고스기(小杉濫人) : 본회는 제국주의 단체로 조직되었으므로 쓸데없이 다수의 단체를 가맹시켜서는 안 된다. 일반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도 국가에 공로가 있는 단체로만 협의해야 한다.

김환(金丸) : 관제에 반대하는지 설치에 반대하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와타나베(渡邊定一郎) : 교육협성회는 주의(主義)가 같은데 가맹시키면 어떠한가? 의장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를 가결하자. 더욱이 본회는 관제에 반대해야 한다.

(자료 결손에 따른 중략)

김환(金丸)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서로 주장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즉 조선인은 식민지 백성이 되는 것에 반대하고, 일본인은 이에 동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내가 본 문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척식이라는 글자는 조선을 식민지로 취급하는 것.

2. 조선병합 당시 메이지 대제가 환발(煥發)한 조칙에는 “특히 조선총독을 두어 이를 통해 짐(朕)의 명(命)을 내리고, 총독은 이를 받들어 육해군을 통솔하고 제반 정무를 통괄한다.”고 되어 있지만, 1919년 관제 개정 시에 “조선총독은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상주(上奏)하여 재가를 받는다.”로 바뀌었고, 더욱이 이번 척식성 설치 관제에는 “총독은 척식대신과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상주한다.”로 변했다. 개정 시마다 그 지위가 저하되어 앞으로 개정이 실시되면 얼마나 저하될지 모르겠다. 나는 폐하의 적자로서 일본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 타이완의 토인(土人)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에 불평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제국신민이 되는 것을 바라 마지않는다. 또 동민회가 오늘날까지 시행해온 사업은 조선인을 일본인 정도로까지 향상시키려는 다름 아닌 동민정신이였다. 이번 문제에 대해 앞으로 조선인이 취하려는 운동방침이 동민회의 일본인 회원에게 당혹감을 주지 않을지 염려되어 탈회하는 바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일본인은 척식성 문제를 둘러싸고 냉정하고도 정관적인 태도로 솔선하여 강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유감이다.

논의에 들어가 협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의사항

1. 일 시 : 4월 24일 오후
2. 장 소 : 경성공회당 혹은 부회관
3. 경 비 : 각 단체가 부담
4. 사무소 : 경성상업회의소
5. 사무담당자 : 각 단체로부터 각 1명
6. 총회 석상에서 강연할 것

강연자

갑자구락부 : 다카하시 고지로(高橋幸之郎), 조병상(曹秉相)

동민회 : 간바라 히사시로(蒲原久四郎), 박영철(朴榮喆)

국민협회 : 와타나베 데이이치로(渡邊定一郎), 김명준(金明濬)

대정친목회 : 데라오 모사부로(寺尾猛三郎), 전성욱(全聖旭)

교육협성회 : 최덕(崔惠)

7. 도쿄 파견 위원 : 미결정

이상과 같이 결의하고 오후 7시 20분 폐회하였다. 이후 사무소에서 협의한 결과, 다음 회의 일시를 4월 24일 오후 5시로 결정하였다. 집회 개최 신고서가 접수되어 허용할지 아니면 제한할지 논의할 필요가 생겼다. 이를 통첩한다.

〈출전 : 拓植省官制反對期成會打合會に關する件, 1929년 4월 23일,
『思想問題ニ關スル調査書類』(7)〉

6) 척식성관제반대 6단체 협의회에 관한 건

경본고비(京本高秘) 제2503호

1929년 4월 23일

경성본정경찰서장

경무국장, 경성지방법원 검사장, 경기도 경찰부장, 부내(府內) 각 경찰서장 전(殿)

척식성관제반대 6단체 협의회에 관한 건

4월 23일자 본호 속보

갑자구락부, 동민회, 국민협회, 대정친목회, 교육협성회, 척무성조선제외동맹의 6단체로 조직된 척무성관제반대기성회가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바, 당국으로부터 주의도 있어 이를 변경하여 2월 24일 오후 5시 반부터 경성공회당에서 전기 6단체의 연합간담회로 개최되었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일 시 : 4월 24일 오후 5시 30분부터 동 8시 20분까지
- 장 소 : 장곡천정 경성공회당
- 회동자 : 6단체 간부 이하 약 80명
- 내 역 : 조선인 40명, 일본인 40명 정도
- 단속경찰관 : 경부 1명, 경부보(제복) 1명, 사복형사 6명
- 사회자 : 6단체 대표자 6명
- 협의 개황

나리마츠 미도리(成松緣)가 개회사를 말하고 좌장으로 스즈키 가이지로(鈴木外次郎)를 추천한 다음, 각 변사가 의견을 발표하였다. 그 요지는 별지와 같다. 다음 결의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이를 가결하였다. 도쿄파견 진정위원 및 결의안 발송처는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다. 도쿄파견 위원인 박영철(朴榮喆), 조병상(曹秉相, 척식성조선제외동맹회 대표), 최덕(崔惠, 교육협성회 대표) 3명은 24일 오후 10시 30분 경성역발 열차로 출발하였고, 결의문을 타전할 곳은 내각총리대신, 추밀원 의장, 귀족원과 중의원 의장, 정우회와 민정당 총재, 사이온지(西園寺) 공작, 시부사와(涉澤) 자작 등 8개소에 보낼 예정으로 본일(25일) 타전을 마쳤을 것이다.

갑자구락부와 동민회는 4월 25일(본일) 중에 대표 파견원을 결정하여 도쿄에 파견할 예정이다. 갑자구락부는 경비 기타 관계상 혹시 이를 중지하기로 하였으나 양 회의 요망에 따라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를 도쿄에 파견할 것이라는 설도 있다.

결의

조선을 척식성에 관할시켜 식민지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것은 병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이를 반대한다.

1929년 4월 24일
동민회
대정친목회
갑자구락부
척식성조선제외동맹회
국민협회
교육협성회
이상

국민협회 대표로서 김명준(金明濬)이 도쿄에 갈 예정이었지만, 어젯밤 출발을 중지하고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

이를 보고 통첩한다.

강연요지

— 동양의 평화

최덕(崔惠)

척식성 관제 반대 이유로서 일한병합에 즈음한 메이지(明治) 대제 폐하의 조치를 인용하면, 일한병합은 분명 동양평화의 기초를 조성하는 것에 있다. 각국 식민지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가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조선을 척식성에 예속시킨다면, 이는 조선을 식민지로 취급하겠다는 사실임은 부정할 수 없다. 또 사무의 합리화를 도모한다고 말하지만, 2천만 동포에게 불안을 주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다. 동양의 평화는 일본과 중국의 친선에 있고, 조선의 치안은 일·중의 친선을 좌우할 수 있다. 조선인의 감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혼란시킬 것이다.

— 이토공(伊藤公)의 경륜을 추억한다

와타나베 데이이치로(渡邊定一郎)

어떤 경우에도 국사(國事)에 분주한 우국지사는 부호가 아니다. 이토 공을 쓰러뜨린 조선인은 국사(國士)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 행위는 감복할 만한 것이 아니다. 공이 조난(遭難)의 찰나에 상대방에게 바보라고 말한 것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공 이외에 조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만약 이토 공이 현재 총독이었다면, 설사 내각이라도 어찌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이나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도 직을 걸고서 본 문제에 반대했을 것이다. 이미 귀족원과 중의원 양 원을 통과하여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조선을 위해 또 동양 평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조선은 2천만 동포가 있고 제국 본토에 버금가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런 상담도 없이 현 총독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만약 사이토 총독이라면) 마지막으로 도쿄에 간 박영철에게 충분히 노력하기를 바랄 것이다.

— 조선은 식민지가 아니다

조병상(曹秉相)

현재 조선에는 암운이 밀려들어 2천만 동포의 안위에 중대 문제가 발생하였다. 조선 내에 거주하는 일본인일지라도 참기 어렵다. 일한병합 당시 양 주권자의 의지를 잘 살피려면,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이유가 없다. 당시 메이지 대제 폐하와 한국 황제 폐하의 조칙을 보면, 분명히 양 민족은 차별 없이 결합되었다. 양 민족의 행복은 동양평화를 유지하고 세계로 비약하는 전제가 되었다. 병합 당시 조선총독은 천황에 직속하고 병권을 장악하였다. 그런데 1919년 제도개정에 따라 총리대신을 거쳐 상주하여 이를 재가받도록 되었다. 병권을 빼앗은 이유는 문관총독이 부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병합에 의해 조선인은 신일본제국의 한 사람이 되었다. 이는 조칙이 명시한 바이다.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척식성은 분명 일본 이외의 것을 통일하는 것이고, 사무적인 통일은 그 이유가 아니다. 나는 총독의 지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2천만민이 행복과 불행의 기로에 설 경우에는 가만히 있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반대한다. 본 문제에 대해 나는 동지와 더불어 반대계획을 진행할 것이다.

－ 무제

원덕상(元惠常)

나는 일본인이자 조선 민족이다. 일본제국에 대한 열렬한 애국심을 지닌 자이다. 반도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본 문제의 해결에 노력하고자 한다. 나는 병합에 충실하고자 동민회를 설립하여 양 민족의 융합에 노력해왔다. 식민지가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이는 조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정치가의 책모이다. 현재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도 본 문제에 대해 제휴할 것이다. 나는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국지사로서 자칭하는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 조선을 위해

요시다 스나오(吉田直)

조선총독의 지위를 향상시킬 때에 이 문제를 애통해하는 것이다. 정치는 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내지연장주의의 실현을 기하고 조선을 향상시키는 것은 민의의 신장에 따르는 문제이다. 사이토 총독을 운운한 것은 이전 연사와 같은 의견이다.

－ 한일병합의 유래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

내가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병합 당시의 조칙에 따라 한일병합은 양국 주권자의 임의의 행동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타이완, 사할린, 남양제도가 일본 영토로 된 것은 무엇보다도 전쟁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이 우리 영토가 된 것은 양국 주권자의 임의의 행동이자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이 종래 영토 이외에 새로운 영토를 획득한다면 그에 상당한 조치를 강구하고 척식성을 신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척식성 신설과 조선을 식민지로 간주하는 것은 그 취지가 매우 다르다. 신영토를 늘려 이를 통치하기 위해 척식성을 설치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조선을

척식성의 관할 내에 두는 것에는 반대한다. 양국 주권자는 평화적으로 병합조약을 체결하였고, 세계 각국 또한 이를 인정하였다. 즉 한일병합의 취지는 동양평화만이 아니라, 세계적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당시 한국민의 입장에서 고찰하면, 친일과 배일 양 파의 논란 속에서 대국(大局)을 바라보고 국민의 앞으로의 행복증진을 위해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멀리 역사를 바라보면, 야마토(大和) 민족과 조선 민족은 그 조상이 같다는 설이 있다. 또 메이지 대제는 조선과 일본이 구별이 없는 동등한 적자라고 말하였다. 타이완, 사할린과 같이 전쟁의 결과 획득한 지역의 민족과 동일시하는 관리가 있다면 이는 커다란 오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조선통치의 치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시에 거주하면서 조선사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테라우치 총독의 무단통치에서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로 바뀌었는데, 이들에는 모두 어느 정도의 폐해가 뒤따랐다. 지금은 양 주의의 절충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절충주의가 좋은지의 여부는 지금 말하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조선사정을 고려하여 식민지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또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별을 폐지하여 과거 홋카이도에 참정권을 부여한 예에 따라 먼저 부산, 대구, 평양, 경성의 4대 도시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지당하다. 나는 외국에 나갔던 박영철 씨가 아침에 말한 일본제국의 신민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 그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았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조선인을 일본 국민과 동일시하여 식민지 거주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혜택이다. 영국과 같이 강대한 문명국조차 식민지 주민과 본국인과의 사이에는 대우상의 차별이 없다. 우리는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 앞으로 냉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오늘 밤 도쿄로 떠나는 분들에게 박영철 씨의 감상담을 전해주며 반대에 전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대신의 의자를 늘리기 위해 척식성을 설치한다는 것은 정당정치의 폐해가 여전히 극심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출전: 拓植省官制反對六團體協議會に關する件, 1929년 4월 26일,
『思想問題ニ關スル調査書類』(7)〉

7) 척식성관계반대운동에 관한 건

경본고비(京本高秘) 제2503호

1929년 4월 26일

경성 본정(本町)경찰서장

경무국장, 경성지방법원 검사장, 경기도 경찰부장, 경성부 내 각 경찰서장 전(殿)

척식성관계반대운동에 관한 건

4월 25일 본호 속보

수제(首題)에 관해 갑자구락부는 4월 25일 오후 5시 20분부터 옥정(旭町) 1정목(町目) 이케다 쇼지로(池田長次郎)의 집에서 간사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는 7명이었다. 이들은 도쿄 파견 위원 전형을 둘러싸고 협의를 거듭하였다. 본 문제는 조병상(曹秉相) 등의 아전인수적인 이기주의에서 나온 책모(策謀)로 만약 그들이 척식성 관계를 반대한다면, 먼저 사상단체인 동민회를 탈퇴하기 이전에 정치단체인 갑자구락부를 탈퇴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이 갑자구락부를 탈퇴하지 않고 동민회를 탈퇴한다면, 이는 다름 아닌 뒤에 야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동민회 부회장 박영철(朴榮喆)에게 이 문제의 중대함을 설득 분기(奮起)시켜 동 씨의 뜻을 받아들이고 서로 제휴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후일 조병상 이하 탈퇴자가 유리한 무언가를 얻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처럼 본 건에 대해 다른 조선인 동지가 이에 추종하지 않는 점을 보더라도 명확한 바와 같이, 이들은 불순한 관계가 섞여 있고 그들의 행동은 직업적이다. 갑자구락부가 이러한 사실에 의거하여 그들의 수단적 행동에 필연적으로 추종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내선융화를 고려하여 절충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본회가 파견하는 위원의 결정은 지금 도쿄에 있는 박영철 일행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다음에 결정하기로 하였지만, 지금 인선중이라는 구실로 연기하고 오후 8시에 산회하였다.

이를 보고 통첩한다.

<출전 : 拓植省官制反對運動に關する件, 『思想問題二關スル調査書類』 (7), 1929년 4월 27일>

8) 최헌식(崔憲軾), 사이토 총독을 맞이하며

도쿄 최헌식

우리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3국 해군 군축회의의 전권대사로 혁혁한 위훈(偉勳)을 세우고 귀국하신 것에 제국신민으로서 감사해야 할 일이다. 군축회의는 불행하게도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었지만, 제국의 공정한 주장과 열성적인 노력은 세계의 평화와 인도(人道)의 확립에 다대한 공헌을 남겼다. 국가의 위신을 널리 해외에 현양한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다. 이는 다름 아닌 총독의 고결한 인격과 충성무이(忠誠無二)의 결과이다. 귀국 이후 전권의 대임을 그만두자 총독의 진퇴를 둘러싼 세간의 소문이 들끓어 나는 우려를 금치 못하였다. 한없이 인자한 총독은 우리 2천만 민중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셨고, 우리는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신뢰하였다. 만약 진퇴문제가 사실이라면 우리 조선 민중에게는 커다란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총독은 일신을 고려하지 않고, 조선 민중을 위해 원칙에 복귀하여 조선 통치를 위해 낮밤으로 진력하고 있다. 나는 생각지도 않은 감격의 눈물로 목이 메었다.

총독이 우리 2천만 민중을 위해 마음 깊이 생각하는 것은 조선에 귀국할 당시의 성명서를 보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성명서에는 “세계의 대세를 바라보건대 사회의 진정한 진화를 기조로 문화를 진전시키고, 자원을 개발하여 국민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보다 급한 일은 없다. 나는 앞으로 한층 조선과 일본의 밀접한 결합을 도모하여 양자의 세력을 융합하고 한군데로 모아 세계평화의 실현에 공헌하고 싶다.”는 한 구절이 있다. 나는 이를 통독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조선과 일본 양 민족의 정신적 결합을 견고히 하여 세계평화의 토대를 쌓으려는 넘치는 노력과 성의이다. 우리 조선 민중은 이 성명서의 의의를 잘 살피고 협심 노력하여 이를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공산당 사건은 일부 인심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총독의 마음에 근심을 드리웠다. 경거망동한 행위이자 지극히 무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진정으로 조선 민중을 위한 열렬한 신념을 품고 일어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부화뇌동하여 이런 불상사를 일으킨 것으로 그들은 물론 우리 민중에게도 더 없는 불행이다. 우리는 더욱 곤궁에 빠져들 뿐이고, 결코 조선과 일본 양 민족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의 대세와 시대의 진운에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에 역행하려 한다면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건대 우리 조선 민중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의식주 문제가 급무이자 초미의 문제이다. 세계 각국을 통해 우리 조선 민중처럼 비참한 민족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부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우리의 많은 민중은 그 날 먹을 것조차 구하기 어렵고, 매년 수만의 인구가 번식되어 해외로 흘러나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 주요 원인은 우리 민중의 무지와 태만에서 비롯되었다. 이 무지와 태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똑같은 것이다. 우리는 먼저 교육기관을 철저히 보급하여 정신적 향상을 추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을 개발하여 물질적 풍부를 도모해야 한다.

지금 당국에서도 이에 유의하여 산업개발을 위해 산업제일주의를 주장하고 매년 수천 만원의 예산으로 치산치수 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일인데,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손발을 움직여 천연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지금은 더욱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다. 우리 조선은 다른 어떤 나라에 비교하더라도 결코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다. 산업에 가장 적합한 국토이다. 우리 민중이 이를 개발한다면 세계 제일의 농업국인 덴마크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덴마크는 한 도서(島嶼)의 사막의 나라이지만 그 민족의 노력을 통해 세계 제일의 부국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세상을 저주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로 기필코 멸망할 것이다. 당면문제의 해결을 방치하고 단지 공상에 흘러 독립을 꿈꾸고 적화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일한병합의 정신은 동양평화를 위해, 아니 양 민족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신을 망각하여 감정에 흐르고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은 정말로 불행이다.

제일선에 서있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어려움을 헤치고 조선과 일본 양 민족의 융합과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출전 : 崔憲軾 齋藤總督を迎えて, 『同民』 제39호, 1927년 12월〉

9) 조병상(曹秉相), 신일본의 20년을 맞이하며

일한병합 후 이미 20년을 맞이한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조선인 사이에는 잘못된 민족 관념이 여전히 남아있고, 일본인 또한 조선인에 대한 태도가 과거와 같다. 아직도 병합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심히 유감이다. 여기에서 나는 조선인의 잘못된 민족

관념에 대해 몇 마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 싶다.

조선인이 민족관념을 바탕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은 견해에 따라 그 출발점에 찬의를 표할 가치가 있다. 요컨대 조선인의 민족관념에서 생성되는 운동은 다름 아닌 조선인의 앞으로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조선인으로서 조선인의 장래를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바로 그래야만 조선인이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민족애와 사회애로부터 나온다면 크게 환영할 일이지 결코 배척할 일이 아니다. 다만 그 견해와 수단방법은 나의 의견과 달리하는 바도 많다. 조선인이 조선의 장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일본과 분리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자임하여 그런 종류의 운동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조선인의 앞으로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것 이외에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향해 그것 이외에도 조선인의 행복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 그것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와 이해(利害)를 설명하고, 설령 그 목적이 달성되더라도 그것이 조선인의 행복이 아닌 이유를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 조선의 일한병합 당시의 상황 및 일한병합의 정신이 아직 충분히 조선인 사이에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조선의 민족애에서 출발한 즉 조선인의 앞으로의 행복을 목표로 한 민족운동이라면, 불합리, 불가능, 불이익인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기보다는 일본 그 자체를 조선인이 자신의 것으로 하겠다는 결심을 통해 그 실행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고 이익이자 행복이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은 정말로 민족애이어야 한다. 현재 일본의 세계적 지위, 일본의 국체(國體) 및 국가의 힘을 조선인이 자신의 것으로 삼아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비로소 약소계(弱小界)에서 용출하여 세계 열강인이 됨과 동시에 동양평화의 주인이 되어 세계의 번민(煩悶)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병합 이후 벌써 20년을 맞이한 오늘날 또다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세계적 지위와 일본의 모든 무대를 조선인이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말로 조선인의 비할 바 없는 중대 문제이자 2천만 민중의 운명을 판단하는 분기점이다. 이것이야말로 조선인이 진정한 민족애의 열기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민족애의 결정(結晶)으로 조선과 일본의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정신도 생겨날 것으로 믿는다. 일본과 조선의 병합은 다른 세계열강과 같이 본국과 식민지의 관계가 아니다. 구주 각국이 식민지를 갖는 것은 본국의 발전을 위해서 식민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만, 일한병합은 결코 것처럼 침략적이거나 식민지적이 아니며 완전

한 동양평화를 위한 것이다. 조선을 그대로 두면 동양의 평화는 파괴되고, 동양은 분명 포악한 백인에게 침략당했을 것이다. 따라서 국토를 보존하고 함께 동양인이 제후하여 발전하기 위해서 소위 일한병합이 이루어졌다. 일한병합은 새롭게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것으로 오늘날 세계에서 보이는 본국 대 식민지, 혹은 다른 나라의 병합과 합방과 같은 관계가 아닌 완전한 세계의 신기축(新機軸)이다. 바로 여기에 조선인으로서 활약할 여지가 있다. 그 대의를 고려하지 않고 조선인은 일본에 정복당한 것처럼 생각하여 스스로 약소감을 품고 동양의 대국을 스스로 파괴하려는 행위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또 한편으로 일본인도 이 병합의 진리를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조선을 마치 식민지처럼 바라보고 조선인에 대해서도 식민지 백성으로만 취급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이는 소화성대(昭和聖代)에서 대일본제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일본 국민은 일한병합 이전의 야마토(大和) 민족과 병합 이후의 조선 민족이 함께 하고 있다. 만세일계의 천황 폐하를 받드는 우리 일본제국이다. 그런데 많은 일본인은 병합 이전의 일본만을 생각하고, 오늘날의 일본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오해와 무리(無理)가 따르고 있다. 양국이 중대한 사명을 갖고 병합한 오늘날, 아직도 일본인은 쓸데없는 우월감으로 조선인을 대하고, 조선인은 스스로 약소감으로 일본인을 대한다. 사소한 감정 문제에만 매달려 대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실로 동양 전체를 위해 우려할 일이다.

오늘날 조선인의 민족관념을 바라보았을 때,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당국의 조치는 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조선인이 조선의 장래를 위해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은 결코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 조선인의 앞으로의 행복을 염려하는 것은 이를 적당히 유도해나가고, 그 수단방법이 잘못된 부분만을 꾸짖을 필요가 있다. 잘못을 잘못된 채로 두면서 결과만을 사직(司直) 기관이 취급하거나 혹은 회유수단을 통한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날 이런 종류의 운동자에 대한 당국의 대책이란 것은 사상을 다루는 기관 없이 취체기관만을 완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환언한다면 병자를 보고 곧바로 장의사와 상담하라는 것과 같다. 병자를 발견했을 때는 먼저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이 필수조건이고, 이후에 의사의 마지막 처치가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장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데 오늘날 조선 민족 운동자에 대한 당국의 태도를 보면, 이를 오히려 고칠 기관은 설치하지 않고 단지 그 결과만을 사직 기관이 취체하는 것은 정말로 모순이다. 조선인의 종래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랜 동안의 비정(秕政)으로 인해 지금 굉장한 번민기(煩

悶期)에 들어간 것 같다. 번민기에 놓여있는 조선청년에게 쓸데없이 위압적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온정이 결여된 느낌이다. 요컨대 조선인이 조선인을 위해 무언가 하려는 그 정신은 양해해야 하고, 그 수단방법의 문제만을 교정하면 충분하다. 오늘날 총독부의 기관을 보더라도 또 지방 각도의 기관 내지는 군부의 기관을 보더라도 이처럼 잘못된 청년을 잘못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기관이 없는 것 같다.

모든 사물에는 출발점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수단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르다. 요컨대 조선인의 민족관념에서 나오는 활동은 그 출발의 정신은 아주 좋지만 그 수단방법에서 커다란 오해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인의 장래를 잘못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소위 잘못을 바로잡는 기관이 국가기관으로서 필요하다. 오늘날 민족주의자에 대해서는 오로지 경찰관헌의 전매특허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사상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통행정관청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조선의 군부를 시찰해보면 군 당국은 사상문제에 대해서 거의 불 구경하는 듯하다. 경찰만이 어떤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을 억누르는 실정이다. 이는 요컨대 취급기관이 없이 단속만 하는 결과에 해당한다. 물론 우리 제국은 법치국가인 이상, 법에 저촉되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단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 법에 저촉되기 전에 저촉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소위 경찰의 최후의 목적은 경찰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조선인의 민족적 지도에 대해서는 민족애의 정신만을 살려 사용하고, 또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활동력을 인정해야 한다. 그 수단방법의 잘못된 부분만을 선도하는 것이 훌륭한 국가사회에 도움을 준다. 모든 운동의 제1선에 서있는 자들은 상당한 용기와 활동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용기와 활동력을 진정한 민족애로 발휘시킨다면 분명 국가사회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조선 민족 및 일본 국민으로서의 움직임에 상당한 효과를 올릴 것이다.

반복하여 말하지만 단지 잘못된 사고방식 부분을 제거하는 하나의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개재하여 앞으로 동양의 대세에 순응하면서 대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는 이 점에 관해 심대한 준비와 용맹심을 갖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책임이 있다.

〈출전 : 曹秉祖 新日本の二十年を迎ふに際して, 『同民』 제52호, 1929년 1월〉

10) 이동화(李東華),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맺어진 미담

최근 조선인이 놀라운 속도로 일본에 건너가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시골에 있는 내가 여기에서 왈가불가할 일은 아니다. 다만 현재 일본에 조선인 노동자가 20만 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 동포와 일본인 사이에는 한쪽이 우월감을 내세우면 또 한쪽은 불평을 털어놓고, 한쪽이 호의를 보여도 또 한쪽은 악의로 이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감정은 서로 조화되지 않고 선천적인 본성까지 황폐해지고 있다.

이런 환경하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앞날이 불화로부터 암흑으로 나아가던 즈음, 말하기조차 너무나도 아름다운 동포애의 미담을 들었다. 순간 실망으로부터 만족으로, 암흑으로부터 광명으로, 비관으로부터 낙관으로 마음의 약진을 금할 수 없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어대전(御大典) 당시 모든 우체국원이 긴장리에 있던 히로시마(廣島) 우편국 전신환계에 더러운 조선옷에 바닥이 단 짚신을 신고 보기에 실망과 초조감, 불안에 떨면서 어눌한 일본어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애원하는 한 조선청년이 있었다.

그의 고향은 인천 만석정(萬石町)이고, 이름은 지동출(池童出)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돌아온 나쁜 친구의 감언에 속아 일본에만 가면 성공할 것으로 믿고 지난달 중순 무렵 일본 도항의 뜻을 정하고 복잡한 수속을 마친 다음 히로시마로 건너왔다.

히로시마에 도착해보니 조선에서 들었던 풍경과 전혀 달랐을 뿐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곳도 찾지 못하였다. 10일간 지인에게 부탁하여 취직자리를 찾을 때까지 가건물의 어두운 구석방에서 지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고향으로부터 도착한 편지에는 부친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위독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있었다. 편지를 받은 그의 슬픔과 실망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집을 떠날 때 그의 여비는 여유의 돈이 아니었다. 주변사람, 친척, 친구에게 빌리고, 부족한 부분은 유기로 만든 밥그릇까지 전당포에 맡겨 겨우 마련한 피와도 같은 돈이었다. 그 돈으로 히로시마까지는 올 수 있었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고향에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그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고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여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집안 사정은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돌아갈 여비를 부친에게 부탁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미안한 마음으로 우체국에 달려와 여비를 보내달라는 전보를 보냈다.

우체국에서 돌아가는 그의 마음은 멀리 인천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전보를 받은 불쌍한 모친은 병상의 부친에게 전보 내용을 알리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자식이 돌아온다

는 말만 전했을 것이다. 모친은 부친을 안심시키고 여비를 마련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신이 떠나올 때의 모습과 3시간 이후 고향집에서 일어날 여러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 뜬 눈으로 그날 밤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오전 중에 답신이 오기를 초조히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그의 생각으로는 없는 돈을 마련하기에는 몇 일정도 걸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송금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였다.

히로시마에 다시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마을의 풍경이라도 잘 보자는 심정으로 숙소에서 나온 지동출은 발이 닿는 대로 이 마을 저 마을로 발을 옮겼다. 그가 떠난 다음 숙소에는 남자가 하나도 없고 친구의 부인과 아이만이 남았다.

그 때 인천의 집으로부터 전신환이 배달되었다. 배달인이 수령인의 도장을 수령증에 찍으라고 말하자, 일본의 말을 하나도 모르는 친구 부인은 다만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손을 내저었다. 배달인은 지동출이 이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 부인이 지금 집에 없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우편국에서는 다시 지동출의 숙소를 찾았으나 그 부인은 또 다시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주변의 다른 조선인 집에도 물어보았으나 수취인이 완전히 불명이었다. 결국 히로시마 우편국은 인천우편국으로 수취인 주거불명을 이유로 전신환을 돌려보내고 그 내용을 지동출의 집에 통지하였다.

지동출이 구경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그 부인은 우편국에서 배달인이 두세 번 찾아왔다고 알렸다. 지동출은 급히 우편국에 달려가 자기 앞으로 인천에서 전신환이 도착했는데 이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자 전신환 담당자는 배달인이 붙인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편국의 규정에 따라 곧바로 차출인에게 환부하였다고 친절히 설명하였다. 사정을 들은 지동출은 하늘이 무너질 듯 놀라고 슬펐다. 조선의 속담에 “화는 홀로 다니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바로 그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병으로 고통받는 부친 곁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괴로움과 자신이 현 주소에 살고 있지 않다는 소식에 놀랄 모친을 생각했을 때, 그는 마치 낮이 나간 사람처럼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직원을 향해 어떻게든 방법이 없을까, 그 돈을 다시 한 번 되돌려 받을 수는 없는지 애원하였다. 그 모습은 정말로 서글퍼 바라보는 사람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다.

망연자실한 그에게 동정한 전신환 직원 핫토리 가쿠타로(服部角太郎)는 창구에 손을 내밀어 지동출의 손을 잡으면서 걱정할 것 없다, 내가 해결할 테니 잠시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였다. 잔무를 정리하고 나온 핫토리 씨는 의지할 곳 없는 지동출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자신의 부친에게도 지동출의 어려움을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부친 또한 그를 불쌍히 여겨 추위에 견딜 만할 만큼의 의류와 물건 등을 주었다.

핫토리 씨의 순수한 태에 정신에 감격한 지동출은 그의 부친에게는 물론 만난 사람마다 그 덕을 칭송하였다. 이상하게도 그의 부친은 그날 이후 위독함을 넘기고 날이 갈수록 쾌유하여 지금은 거의 완쾌에 가까워졌다.

이 이야기는 인천에서 최근 인정미담으로서 조선인 거리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히로시마의 핫토리 씨에게 감사장을 보내는 사람도 수십 명에 이른다.

젊은 한 사람의 일본인과 조선인이 우연한 기회에 동정한 사건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이다.

링컨이 말하는 “누구에 대해서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해 인애(仁愛)의 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인간은 사랑을 위해 태어나, 사랑을 위해 고민하고, 사랑을 위해 죽는 것이다.

조선인과 일본인 청년은 서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사랑하는 친구를 가져라.

〈출전 : 李東華, 內鮮人間に結ばれた美談 『同民』 제56호, 1929년 5월〉

11) 박영철(朴榮喆), 일본을 여행하고

동민회 부회장 박영철

지난번 척무성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가 도쿄에 갔을 때, 중앙조선협회에는 이전에 조선에 관여한 사람이 있어 많은 편의를 제공해주었다. 특히 미즈노(水野) 전 정무총감, 고다마(兒玉) 현 정무총감, 우사미(宇佐美) 씨, 바바 에이이치(馬場鐵一) 씨, 아카이케 아즈시(赤池濃) 씨, 이리에 가이헤이(入江海平) 씨, 오자키 다카요시(尾崎敬義) 씨,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 씨, 모리야 에이후(守屋榮夫) 씨, 마루야마 쓰루기치(丸山鶴吉) 씨 등은 각별히 호의를 베풀어주셨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상의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은 이전 조선에 계셨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깊은 이해

와 동정을 지니고 있으나, 사카타니(阪谷) 씨, 에키 가즈유키(江木千之) 씨 등도 조선의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의외이자 또한 아주 기뻐다.

이처럼 식자 사이에 점차 조선을 이해해주시는 분이 늘어난 것은 기쁜 일인데, 아직 일반 국민의 몰이해는 심각하다. 특히 놀란 것은 젊은 신문기자 등은 조선을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을 알리기 위해서는 문서와 회화사진 등에 의한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소위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처럼 한번 조선에 데리고 와서 실지를 보여주는 것이 조선을 일본에 소개하고 나아가 내선융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가장 빠른 첩경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번 가을의 조선박람회와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일본인을 조선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주 좋은 시도이다.

다음으로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도항에 대해서이다. 조선인이 일본에 일하러 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종래처럼 만연히 도항하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일상어가 가능할 정도의 일본어를 구사하고, 여비도 조금은 준비하여 상당한 연고를 찾아 가지 않으면 쉽게 직업을 구할 수 없다.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에 건너가 일도 없이 놀다가 결국은 걸식으로까지 전락하여 도쿄 거리를 배회하는 자도 있다. 그들이 문 앞을 찾으면 처음에는 10전, 20전, 1원을 받을 수 있지만 두세 번 반복하면 누구나 귀찮아한다. 조선인이라면 모두가 파렴치한 자인 것처럼 일본 동포가 인식하는 결과를 낳는다.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인 노동자의 최근 경향은 오사카 부근의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술을 마시며 놀거나 싸움을 벌였지만, 최근에는 차분해져 저금을 하는 자도 나타났다. 또 일반 조선인 유학생도 도쿄에만 3천 명이 넘는데, 이들 또한 처음에는 사상문제 등을 연구하면서 문제를 일으켰지만, 최근에는 모두 열심히 공부하는 모양이다.

이러한 기쁜 경향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이기동(李起東) 씨를 회장으로 받들고 박춘금(朴春琴) 씨가 부회장인 상애회(相愛會)에서 도쿄에 훌륭한 회관을 건립하고 일본에 있는 조선인을 위해 무료숙박과 직업소개 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 회관 건립에는 특히 마루야마와 아카이케 두 사람의 공헌이 컸다. 두 사람은 건축비가 부족하면 가보를 저당 잡혀서까지 자금 조달에 적극적이었다. 이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특히 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여 함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출전 : 朴榮喆 内地に旅して, 『同民』 제59호, 1929년 8월〉

12) 시국대책조선대회(기사)

국제연맹조사단의 보고는 많은 착각을 일으켜 사변의 진상과 원인, 현상 등에 대하여도 잘못 관찰한 점이 많으며 그중에도 만주국 건설에 대하여 조선 사람은 불찬성한다는 언사를 하여 조선인과 일본인간의 감정을 저해하고자 음모를 하는 것은 자못 유감이다. 그리하여 조선인 간 유력자와 국민협회, 동민회, 대정친목회, 일만동화회(日滿同和會), 갑자구락부 등의 연합이 주최하여 명(明)¹⁰⁾ 15일 오후 4시 반에 부내 장곡천정 공회당(公會堂)에서 시국대책조선인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국제연맹이 세계평화와 인도를 위하여 공정한 조치를 잘못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국민의 일치단결을 기하기로 하였다. 당일에는 고희준(高羲駿), 박춘금(朴春琴), 조병상(曹秉相) 씨의 개최 취지와 설명 등이 있을 터이며, 결의를 하여 국제연맹에 전보를 놓기로 하였다. 그리고 트럭 행렬과 비행기 선전 등으로 동 회의 기세를 북돋울 것이며 오후 7시부터는 조병상 씨가 라디오방송을 하게 될 것이라 한다.

〈출전 : 時局對策朝鮮大會, 『每日申報』, 1932년 11월 15일〉

13) 시국대책조선대회 결의문(기사)

국민협회, 동민회, 대정친목회, 갑자구락부, 일만동화회(日滿同和會) 등 5개 단체의 주최로 시국대책조선대회를 개최한다 함은 기보(既報)한 바 예정과 같이 15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었다. 주최 측의 간부들은 트럭과 자동차 7, 8대에 분승하여 대대적으로 선전행렬을 하는 한편 비행기로 선전을 하는 등 그 기세를 과시하였는데, 정각 4시 반경에는 벌써 수많은 군중이 회장인 경성 공회당에 가득 차게 되었다. 정각이 되자 대회위원장 신석린(申錫麟) 씨가 박수 소리 중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이어서 조병상(曹秉相) 씨와 고희준(高羲駿) 씨의 동(同) 대회 개최의 취지 설명이 있었고, 그 다음은 대의사(代議士) 박춘금(朴春琴) 씨의 ‘우리의 결의 있을 뿐’이란 제목으로 국제연맹 조사위원의 보고와 동양평화에 대한 열변을 토하여 만장의 박수를 받고 뒤를 이어 고다마(兒玉) 참모

10) 명일(明日)은 내일을 뜻함. 대회일과 신문 게재일이 동일한 15일이어서 내용상은 ‘오늘’이 맞음.

장과 마츠모토(松本) 경기도지사와 이노우에(井上) 부윤의 축사가 있었다. 그리고 주최 측의 방한복(方漢復) 씨가 단상에 올라 결의문을 낭독한바 이 결의문은 국제연맹과 기타 관계당국에 타전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의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따라서 지난 가을 이래 만주 방면에 활약한 관동군과 조선군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결의를 거듭 행하고 황군(皇軍) 만세 삼창을 한 후 성황리에 폐회하였다.

결의문

만주는 조선민중의 가장 인연 깊은 땅으로서 과거 수십 년의 쓰라린 경험은 이 만주에 왕도주의(王道主義)의 독립국 건설 이외에 재만(在滿) 조선민중의 생활과 행복을 유지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을 왜곡하는 리튼 경(卿) 등의 보고¹¹⁾는 동양 영원의 평화를 파괴하는 위험을 포장하였을 뿐 아니라 전술(前述)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전혀 결여한 것으로서 우리 조선민중이 감내하기 어려운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히 이를 배격하여 만주국의 기초가 더욱 더욱 공고해져 공존공영의 열매를 거두기에 이르기를 기대하여 위를 결의하였다.

〈출전 : 時局對策朝鮮大會 決意文, 『每日申報』, 1932년 11월 17일〉

11) 국제연맹에서 일본군의 만주침략이 파리조약 위반인가 아니면 정당한 자위행동인가에 관해 조사하도록 리튼(Lytton) 조사단을 파견, 6개월간 '만주사변'의 진상을 조사하여 작성된 보고서를 말함.

Ⅲ. 대정친목회(大正親睦會)

1. 조직 설립 관련 기사

[1-1]

대정친목회 조직

자작 조중응(趙重應) 씨와 실업가, 종교가, 교육가, 법조계, 의학계 등 민간 측 유지자의 발기로 내선인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정친목회라는 회를 조직할 터인데 그 발기인회를 근일 명월관에서 개최하여 제반 사항을 협정할 계획이라더라.

〈출전 : 大正親睦會 組織 『每日申報』 1916년 11월 25일〉

[1-2]

대정친목회(사실)

우리 인류 공동생활의 조직된 범위구역은 크게 국가요 그 다음은 사회요 그 다음은 가정이라, 그런즉 동일한 민족으로서 동일한 국가에서 함께 생활하며 거주할진대 화합, 단합함이 공동생활의 원칙을 진정 발휘하는 줄로 이해할 것이오. 수많은 가정이 모여 한 사회를 이루고 수많은 사회가 모여 한 국가를 이룸은 불을 보는 것과 같이 명확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은 사회 되는 요소이고 사회는 국가 되는 요소이며, 즉 국가는 대가정이요 가정은 소국가라.

그러므로 우리 공동생활의 원칙은 그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를 영구히 유지하며 발달시키며 확대함에 있으니 만일 유지하지 않고 발달시키지 않고 확대하지 않음은 즉 공동생활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파괴함이요, 따라서 이른바 공동생활의 원칙은 모르는 사이에 소멸됨이 아닌가. 그러므로 현대의 진보의 기운은 공동생활의 의무와 원칙을 현실화하기 위해 아무쪼록 가정을 건전하게 하고자 하며 사회를 공고하게 하고자 하며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자 하는도다. 만약 부패한 가정, 분열된 사회, 빈약한 국가에서 완전한 공동생활을 구하고자 하면 그 방법은 이러하오. 보통 동일한 민족으로서 동일한 국토에

거주할진대 마음과 힘을 모으고 보조(步調)를 일치하여 부부같이, 부자같이, 형제같이, 자매같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지키며 서로서로 도우며 억만 인이 억만의 마음 되지 말고 다만 한마음 됨에 있으니 요즈음 경성에서 모 유지 등이 발기(發起)함과 같은 대정친목회(大正親睦會)가 즉 이의 취지에 다름 아니라.

경성은 조선의 수선지지(首善之地)¹⁾로 각 지방에 모범을 보일 신문물이 들어오고 나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되나 수년 이래에 그 이름만 있고 그 실(實) 없어 지방에 비하면 반대로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있음은 일반 식자(識者)의 탄식을 금하지 못하던 바라. 지금에 우리 공동생활의 원칙을 건전하고 진정하게 실현시킬 의의로 대정친목회를 발기하였는데, 공통 목적인즉 여러 계급을 불문하고 협동일치(協同一致)하는 기관을 만들어 횡□(橫□), 다른 의견, 잘못된 견해, 무상(誣傷) 등 허다한 폐습을 모두 없애버리고 각각 분발, 향상하는 정신으로서 민족 번영에 관한 예의도덕(禮義道德), 근검저축(勤儉貯蓄), 식산흥업(殖産興業), 어지러운 풍속의 교정, 납세의무의 관념, 위생장려 사상, 내선인(內鮮人)의 융화단합(融和團合), 그 외 문명적 행위를 서로 훈계·진작(振作)·고취(鼓吹)하여 경성 내의 공동생활을 완전히 한 후 점차 지방에 보급하고 모든 도(道)에 이르러 대대적이고 완전한 공동생활의 의무를 굳게 지키고 공동생활의 원칙을 알게 함이 그 중요한 취지라.

대체로 국민의 지식정도에 고하(高下)가 있고 우열이 있고 장단(長短)이 있고 대소(大小)가 있고 과불반(過不半)이 있으니, 이를 균일하게 함은 원래 쉬운 일이 아니라. 그렇다고 할지라도 서로 친밀하고 화목한 단순, 간략한 일에 이르러서는 선각자 혹 도솔자(導率者)가 이끌어 도와주는 여하에 따라 일치되지 아니할 리 만무하니 이것이 본 친목회가 발기된 까닭이라. 그 범위는 매우 광대한 것 같으나 그 취지는 극히 간단명료하다.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세 사람이 의론을 같이하지 않음은 조선인의 폐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오. 다소 꾸짖지 않는 의미로 말하면 지식의 정도에 차등이 현격한 까닭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뒤쫓아 따라잡고 불肖자(不肖者)가 현(賢)을 뒤쫓아 따라잡고자 하는 매우 작은 향상심만 각 뇌리에 각인하고 협동, 단합하면 이를 수 없는 일이 없을 것이오. 또한 분열, 배반하면 모든 일을 이를 수 없을 것이라는 긴요한 뜻만 각 머리와 생각에 두어 작게는 가정의 관념을 크게는 국가의 관념을 배양함에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으면 본 친목회가 발기된 최초의 본지(本旨)를 이제야 다 발휘하여 점차 우리 조선의 향상, 발전하는 좋은 기관 됨을 얻고 신정(新政)을 익찬(翼

1) 다른 곳보다 나은 곳 혹은 그런 지위라는 뜻으로, 서울이나 또는 옛 성균관을 일컫는 말.

贊)²⁾하는 일종의 보조자 됨을 얻고 우리의 공동생활에 다대한 편의와 행복을 주는 자 됨은 말할 필요도 없는 바라.

〈출전 : 大正親睦會 『每日申報』, 1916년 11월 29일〉

[1-3]

대정친목회 발기회

누보와 같이 지난 29일 오후 8시 명월관에서 대정친목회 발기인회를 열었는데 참가자는 귀족, 실업가, 변호사, 의사, 신문기자, 기타 민간 유지가 모이니 약 50여 명이라. 정각에 한성부민 회장 자작 조중응 씨가 임시회장으로 본회 발기의 취지를 설명함에 일동이 열성으로써 찬성하여 동 회 규약을 하나하나 통과하고 임원 선정에 들어갔다. 회장은 자작 조중응 씨로, 부회장은 한성부민회 부회장 조진태 씨로, 고문은 본(本)사장 아베 요시이에(阿部充家) 씨로 추대하고 그 다음으로 평의원 21인, 간사 9인을 다음과 같이 호천(呼薦)하여 결정한 후, 다과의 향응이 있다가 산회함은 12시경인데, 일동의 만족한 뜻은 말과 얼굴빛에 가득할 뿐 아니라 각기 충성(衷誠)³⁾으로 본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로 결심하더라.

대정친목회 간사

예종석(芮宗錫)(전무), 유해중(劉海鍾), 홍충현(洪忠鉉), 최강(崔岡), 김린(金麟), 방태영(方台榮), 사일환(史一煥), 안순환(安淳煥),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健太郎)

대정친목회 평의원

한상룡(韓相龍)(평의장) 남작 박제빈(朴齊斌), 백완혁(白完赫), 김중환(金重煥), 김용제(金鎔濟), 정구창(鄭求昌), 주성근(朱性根), 김한규(金漢奎), 유병필(劉秉玘), 김성기(金性璣), 민유식(閔裕植), 안상호(安商浩), 선우일(鮮于日), 박승기(朴承夔), 이강혁(李康赫),

2) 제왕의 정치를 잘 도와서 인도함. 천자를 보좌함.

3) 충심(衷心), 성충(誠忠)과 같은 뜻. 진심어린 정성.

엄주익(嚴柱益), 최진(崔鎭), 윤치호(尹致昊), 백형수(白滢洙)

〈출전 : 大正親睦會 發起會, 『每日申報』, 1916년 12월 1일〉

[1-4]

대정친목회 발기인회

대정친목회는 기보한 것같이 29일 오후 9시부터 명월관에서 발기인회를 개최하고 중앙(衆望)⁴⁾으로써 자작 조중응 씨를 회장에, 조진태 씨를 부회장에 아베(阿部) 본(本) 사장을 고문에 추대하고, 다시 예종석, 유해중, 홍충현, 최강, 김린, 방태영, 사일환, 안순환, 나카무라 겐타로 제 씨를 간사에, 한상룡, 박제빈, 백완혁, 김중환, 김용제, 정구창, 주성근, 김성기, 민유식, 안상호, 선우일, 박승기, 이강혁, 엄주익, 최진, 윤치호, 백형수 제 씨를 평의원에 추천하였다.

〈출전 : 大正親睦會發起人會, 『京城日報』, 1916년 12월 2일〉

2. 대정친목회의 발기에 대하여, 자작 조중응 씨 담(談)

자작 조중응(趙重應)씨 기타 민간 측 유지의 발기로 대정친목회라 칭하는 사교기관 설립이 계획 중임은 별항과 같거니와 다음 발기인 자작 조중응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경성은 조선의 중심지 수도로 총독부 소재지라. 그런즉 제반 사물이 마땅히 각 지방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각 지방을 둘러보면 문명 신정(新政)이 실시된 이래 각기 거주하는 인사가 자각, 분발하는 정신으로 임하여 해당 지방에서는 번영에 관한 것, 경제에 관한 것, 근검과 저축에 관한 것, 식산 흥업에 관한 것, 풍속의 교정에 관한 것, 납세의무와 위생이행에 관한 것, 국가경축일에 관한 것과 예식, 도덕에 관한 것,

4) 여러 사람에게 받는 신망을 뜻함.

기타 상호간 친목 애조(愛助)에 관한 것, 내선인의 융화, 단합에 관한 것 등 문명적 양풍 미숙이 점차 발달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시험차 경성을 둘러보면 우리 측 민간의 자력으로 이룬바 범사가 반대로 지방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 많으니 이는 다른 것이 아니다. 각 지방은 성취한 부분이 협소하고 사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친밀한 결과 공동협력하는 기회가 있어 자연히 일치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이오. 경성은 이에 비하면 그 부분이 매우 넓고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소원(疏遠)하여 자연히 일치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한 가지의 일에도 의론(議論)이 백출(百出)하고 의지가 불통(不通)하여 혹 잘못되거나 그릇된 의견도 그간에 이행하는 등 허다한 폐해가 함께 생겼다. 뿐만 아니라 구몽유습(舊夢流習)으로 인하여 공상허망(空想虛妄)에 의뢰(依賴)하기를 일삼고 우리에게 각기 자각 분발하는 책임과 정신이 부족하여 도금사지측차(到今思之則此)로 인하여 경성의 문명 발달이 각 지방에 뒤처지게 되었으니 경성인인 우리가 어찌 개탄치 아니하리오. 이에 관하여 제일로 적절히 촉감한 자는 금년 각 방간(防間)⁵⁾의 자위적 공덕심(公德心), 방역(防疫)에 대하여 경성 우리 민간에 일치한 위생기관이 없음으로 피차에 저어불편(齟齬不便)하던 일을 추측하여도 기타(其他)를 알 수 있으리라. 이로 인해 경성 중 우리 측에서 가히 사회적으로 우수한 인사와 서로 도모하여, 금일 소대(昭代)⁶⁾에 문명이 일신발달(日新發達)하는 행운에 익가전력체준(益加專力體遵)하고 한마음으로 진취(進就)하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를 소통하는 기관을 이루되, 특히 대정친목회라 칭하였다. 그리고 대정성명시대(大正聖明時代)⁷⁾의 일대 기념을 만들어 양진가절(良辰佳節)과 기타 기회에 서로 상봉할 때는 탕연(蕩然)한 담소화락지간(談笑和樂之間)에 일치한 동정으로 범사를 두루 발달케 하면 우리 신진사회에 만에 하나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문명 수준의 진보에 따라 점차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동화, 합성된 완전무결한 일대 사교기관을 만들게 되면 국가에 대하여 충량한 정신을 일관하고 각도(各道) 지방에 대하여 최선의 모범이 될 줄로 헤아리노라.

〈출전 : 大正親睦會의 發起에 대하여, 子爵 趙重應氏談 『每日申報』, 1916년 11월 25일〉

5) 시정, 세간을 뜻함.

6) 태평성대의 시기를 일컬음.

7) 다이쇼(大正)천황의 집권기로, 다이쇼천황의 덕이 거룩한 시대라고 일컬음.

3. 대정친목회의 명(名)과 실(實)(京城小言)

◎ 대정친목회는 그 이름과 같이 대정성대(大正聖代)를 맞아 일선인(日鮮人)의 융합(融合)과 동화(同化)를 꾀하고 조선인에게 일치향상(一致向上)의 염원을 진작케 하여 제국의 일부 영토 된 조선으로 하여금 하루라도 속히 제국통치의 방침을 실현케 하는 동시에 조선인 또한 제국신민 됨에 부끄러울 바 없는 자격을 얻게 함이 그 유일의 목적이자 방침인 듯하다.

◎ 회의 목적이 이와 같이 선미(善美)하고 정대(正大)한 즉 참가회원은 경성 내의 우수하며 이름 있고 가히 타의 모범 될 만한, 평소 타의 경앙(景仰)을 받는 귀족 관리 및 유지가, 자산가, 실업가, 교육가, 기타 각 방면의 계급을 망라하였으며 회원수는 삼백 명에 가까운지라. 그런즉 반도의 수선지(首善地)인 경성에서 경성 굴지(屈地)의 인물을 유치(維致)함은 즉 대정친목회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지르다.

◎ 그러나 우리는 개인 및 단체를 불문하고 명과 실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상승(上乘)의 개인, 상승의 단체라 하노니, 만약 대정친목회로서 절호(絶好)한 명의(名義)하에 최선의 목적 및 최선의 방침을 실현케 함이 없다면 이는 모임 전체의 면목상에 관계됨이 지대할 뿐 아니라 이에 있어서도 없느니만 못한 방간(坊間)⁸⁾의 논란을 배격하기 어려울 것이니 명실상부의 사자(四字)가 실로 우리 사회의 명심불망(銘心不忘)할 묘체(妙諦)가 되리르다.

◎ 지금 대정친목회의 성립이 일천(日淺)하여 아직 창시(創始)의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인(世人)은 오히려 하등의 실적이 현저한 줄로 기대함은 과연 조금한 것이라고 말할지라. 그러나 이것은 아직 그 회규 중에 □열한 최선의 목적 중에 하나라도 실제로 시행하거나 경영한다는 말을 듣지 못한 것 때문이니, 만약 자력(資力)을 요하여 불능이라 할진대 자력을 가진 자 다수 참가됨이 아닌가. 만약 지력(智力)을 요하여 불능이라 할진대 지력(智力)이 있는 자 다수 참가됨이 아닌가.

◎ 이와 같이 자력(資力)이 있는 자와 지력(智力)이 있는 자가 다수 단합하여 일체가 된 이상에는 조선의 발달에 도움이 될 일 및 조선인의 계도(啓導)에 이익이 될 일을 속히 연구하여 그 목적을 실행하고 그 방침을 실시함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은 대정친목회의 실천을 이루는 일단(一端)이 아닌가. 만약 그 절호한 명의하에서 인순주저(因循躊躇)⁹⁾하여 하나의 일도 이루지 못하였다면 대정친목회라는 미명(美名)이 무의미

8) 세간, 시중, 변화가를 뜻함.

하게 소멸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계성각오(戒省覺悟)할 바이오.

◎ 조선은 예로부터 색론계급(色論階級)의 분분한 의론에 연유하여 쇠퇴에 이른 구방(舊邦)이라. 지금까지도 그 남은 폐해가 완전히 없어졌다 말하기 어려우니 대정친목회와 같이 다인다수 계급이 집합한 단체에서는 동첩즉색론계급담(動輒則色論階級談)이 일어나기 쉬워 회원 상호 간 감정을 충돌케 하거나 회원 상호 간 자격을 경멸하는 폐가 없게 주의하기 어려우니 현대에는 학식과 덕조(德操)¹⁰⁾와 품행과 자력(資力)이 있는 자를 최상의 인격이라 말하지 않는가. 또 최상의 계급을 점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우리 대정친목회는 과연 최상의 인격을 망라하고 최상의 계급을 점(占)하였도다.

◎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정친목회로서 인순주저하여 어떠한 일도 이룬 바가 없다고 평하는 것도 아니며 또는 회내에 색론계급담 등이 있어 회원의 단합심을 저어(齟齬)케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요. 다만 우리 이후에 우리가 일치협력하여 조선의 발달, 조선인의 계도를 담임(擔任)한 우리 대정친목회의 대목적(大目的)을 실현케 하여 그 미명만 있고 그 실적은 없는 타인의 조언을 듣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

〈출전 : 大正親睦會의 名과 實 『每日申報』, 1917년 3월 1일〉

4. 법인 설립 관련 관보 게시

명 칭 : 사단법인 대정친목회
사무소 : 경성부 황금정 2정목 193번지
설립허가년월일 : 1922년 11월 4일
자산총액 : 금 18,700원 69전
출자방법 : 회비, 기부금, 기타 제 수입으로 조성한다
이사 이름, 주소 : 경성부 삼청동 147번지 민영기(閔泳綺)
경성부 견지동 44번지 조진태(趙鎭泰)
경성부 다옥정 184번지 예종석(芮宗錫)

9) 인순(因循)과 주저(躊躇) 모두 머뭇거리고 망설임을 뜻함.

10) 변함없는 굳은 절개를 뜻함.

경성부 종로 5정목 100번지 이강혁(李康赫)
경성부 원동 147번지 권병하(權丙夏)
경성부 서대문정 2정목 118번지 백형수(白滢洙)
경성부 가회동 93번지 한상룡(韓相龍)
경성부 필운동 195번지 유해중(劉海鍾)
경성부 소격동 117번지 전성욱(全聖旭)

대표이사 이름 : 민영기(閔泳綺)

위 1922년 12월 22일 등기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12월 8일〉

5. 대정친목회에 관한 개요 자료

[5-1]

대정친목회(명월관 내)

회 장 : 이윤용(李允用)¹¹⁾ 남작(원 회장 자작 조중웅)

부회장 : 조진태

전임이사 : 예종석

이 사 : 유해중 외 8명

평의장 : 한상룡(외 평의원 20명)

회 원 : 250명

1916년 11월 설립

본회는 유일의 친일파로 지목되고 그 목적은 서로 의사의 소통을 통해 정의를 두텁

11) 원문에는 '李尹用'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키임.

게 해서 정신수양을 한다. 다음 사항을 연구

- 1) 국가경절(國家慶節)에 관한 건, 경성 번영에 관한 건
- 2) 경제 및 근검저축, 식산 흥업에 관한 건
- 3) 법령을 주지시키고 납세의무와 위생근행(衛生勤行)에 관한 건
- 4) 예의, 질서와 공사 도덕에 관한 건
- 5) 풍속 교정 및 내선인 융합과 일치에 관한 건
- 6) 기타 사교상 필요한 사항

〈출전 : 細井肇, 『鮮滿の經營-朝鮮問題の根本解決』, 自由討究社, 1921년, 446쪽〉

[5-2]

내선융화단체 : 총독정치를 시인하고 공존공영을 본수(本首)로 하며 일본과 조선의 융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동민회, 대정친목회, 대동동지회 등이 있다.

(중략)

(4) 대정친목회

1916년 11월 상호의사의 소통, 정의(情誼)를 돈목(敦睦)히 하여 지식을 계발함으로써 다이쇼 · 쇼와 시대의 문명적 신진사회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여 경성에 재주한 조선인과 일본인의 지식계급 약 100명이 모여 조직하였다. 이래 특별한 시정활동 없이도 항상 관민 간의 접촉에 노력하고 있다. 현 간부는 회장 권중현(權重顯), 부회장 데라오 모사부로(寺尾猛三郎), 상임간부 예종석(芮宗錫), 전성욱(全聖旭)이다.

(하략)

〈출전 : 『朝鮮の治安狀況』, 朝鮮總督府 警務局 編, 1927년〉

[5-3]

대정친목회

단체 명칭	대정친목회		
취지 목적	내선인의 융화, 관민일치, 풍교의 교정, 식산흥업의 장려 및 지식의 계발을 목적으로 문명적 신진사회를 완성한다.		
개요	<p>한일병합에 위훈(偉勳)이 있는 고 조중응 자작, 이완용 백작, 송병준 등은 항상 내선동화를 주장하고 또 뜻을 가지고 열심히 조선인을 지도해왔다. 1916년 조중응의 주창하에 내선인의 융화, 관민의 교정, 식산의 흥업 장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설립을 기도하여 조선 귀족 및 실업가에게 자문한 결과 약 백 명의 찬성자를 얻어 같은 해 11월 25일 본 회를 설립하고 사무소를 부내 광화통(光化通) 명월관에 두고 조자작을 회장으로 하여 대정친목회라 불렀다. 1918년에는 본부 내 다옥정(茶屋町)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다시 대정친목회라 고쳤다. 회세가 차체에 왕성해져 한때 경성의 상류 조선인 간에 사교기관으로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1919년 조회장이 흥거하고 이완용 후작이 후임으로 되었다. 다시 민영기 남작이 회장으로 된 시대에 제종의 회합의 경우에는 항상 본부 고관 및 민간 유력자가 열석하고 또 만주 기아의 구제에 분주하는 등 상당한 성적을 보였다. 1922년 동 회관 건설 계획을 세워 장래 크게 활동하려 했으나 재정이 뜻대로 되지 않아 중단되기에 이르렀고 새로이 회장의 진퇴문제가 야기되는 등 분규가 일어났다. 같은 해 11월 본 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내용의 쇄신에 노력했으나 豫期の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회장 이재극(李載克)의 때 사무소를 부내 장곡천정(長谷川町) 11번지로 이전하였다. 1933년 예종석이 회장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회세가 극히 부진하여 하등의 주목할 만한 활동이 없다.</p>		
소재지	경성부 장곡천정 11	유지방법	회비로 유지
설립연월일	1916년 11월 20일	임원	예종석(芮宗錫), 전성욱(全聖旭), 이강혁(李康赫), 서만순(徐晩淳), 오태환(吳台煥), 이우경(李愚暲)
소속재산	없음		

〈출전 : 『治安情況』, 京畿道警察部, 1938년 9월, 92쪽〉

6. 사업 및 활동 관련 기사

[6-1]

대정친목회 미거(美舉)

신년을 위시하여 해당 회원은 물론 공사(公私) 연회와 기타 모임에 정확한 시간을 엄수하여 사회에 신용을 얻고 또 경성의 번영책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회 간부 제 씨는 근일에 조선인 측의 제반 상황(商況)을 면밀히 시찰한 바 첫째, 본 회원 중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종래의 폐습이던 물가의 에누리(餘利)와 고객에게 친절과 공손한 예의가 부족하던 것도 점차 일본 상인의 양풍(良風)을 모범하여 차차 개선하여져 일반에 좋은 영향이 파급하였다고 세평(世評)이 자자하더라.

〈출전 : 大正親睦會 美舉, 『每日申報』, 1917년 2월 7일〉

[6-2]

대정친목회 평의회

대정친목회에서 26일 오후 2시부터 조(趙)회장 저택에 동 회 이사 평의원이 회집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난상 협의하였다더라.

1. 회칙 개정의 건
2. 시간여행(時間勵行)¹²⁾의 건
3. 내선인동화(內鮮人同化)의 방법 촉진에 관한 건
4. 풍속 개량에 관한 건
5. 유익한 신사업의 실지(實地) 연구에 관한 건

〈출전 : 大正親睦會 評議會, 『每日申報』, 1917년 2월 27일〉

12) 시간을 지키는 것을 뜻함.

[6-3]

대정친목회 송영연(送迎宴)

이번 모임에 승진한 야마가타(山形) 소장(小將) 및 경관 연습소장으로 영전한 마츠이(松井) 경시(警視)와 신입 마에다(前田) 대좌 및 나가노(永野) 경시를 위하여 대정친목회장 조(趙)자작 이하 기타 관민유지는 지난 11일 명월관에 성대한 송영연을 배설하고 야마가타(山形) 소장 및 마츠이(松井) 경시에게는 석별의 정을 표하기 위하여 은배(銀杯)를 증정하였더라.

〈출전 : 大正親睦會 送迎宴, 『每日申報』, 1917년 4월 14일〉

[6-4]

대정친목회 이사회

대정친목회에서는 오는 31일 천장절(天長節) 봉축(奉祝) 제등행렬(提灯行列)의 건에 대하여 24일 오후 8시부터 조(趙)회장 저택에서 이사회를 열고 제반 사항을 협의하였더라.

〈출전 : 大正親睦會 理事會, 『每日申報』, 1917년 10월 25일〉

[6-5]

이윤용(李允用) 남작 신임 피로(披露)

고 자작 조중응 씨에 대하여 대정친목회장으로 된 남작 이윤용 씨는 24일 오후 4시부터 종로 중앙청년회에 다화회(茶話會)를 열고 신임 피로를 하였다더라.

〈출전 : 李允用男新任披露, 『每日申報』, 1919년 11월 23일〉

[6-6]

대정친목회 평의원회

대정친목회에서는 27일 오후 4시부터 명월관 지점에서 평의원회를 개최하고 회칙 개정의 건과 기타 사항을 부의(附議)¹³⁾한바 그 개정의 중요한 것은

1. 제4조의 목적 중에 육영사업에 관한 항과 회보 또는 잡지 등 발행에 관한 사항을 가입할 것
2. 제7조 임원 중 이사 15인을 5인으로, 평의원 50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하고 참사(參事) 3인을 신설하여 고문 외에 상담역 약간 명을 세우는 것
3. 제17조 동 회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서무, 조도(調度), 사교, 사업, 조사의 오절(五節)을 두어 이사로 하여금 겸임케 할 것

등인데 동 회에서는 금후 육영사업에 조력할 터이며 우선 지방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경영할 터인데 현재 구체적 계획을 진행 중이라더라.

〈출전 : 大正親睦會의 平議員會, 『每日申報』, 1920년 12월 30일〉

[6-7]

대정친목회 기숙사 경영

대정실업친목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4시에 명월관 지점에서 평의원회를 열고 회칙 개정 기타의 건을 부의(附議)한바 회칙 개정의 중요한 것은

1. 제4조의 목적 중에 육영사업에 관한 사항 및 회보 또는 잡지 등 발행에 관한 건을 삽입할 것
2. 제7조 임원(役員) 중 이사 15인을 5인으로 하고 새롭게 참사(參事) 3명을 두며 평의원 50인 내를 20인 이내로 줄이고 고문 외에 상담역 약간 명을 둘 것
3. 제17조 동 회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서무, 사교, 사업, 조사로써 이를 겸임케 함

13) 토의에 부친다는 뜻.

등인데 동 회에서는 육영사업으로 지방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경영할 예정으로 목
하 구체적 계획을 진행 중인데 머지않다 착수함에 이르리라 하더라.

〈출전 : 大正親睦會 寄宿舍 經營, 『每日申報』, 1921년 1월 7일〉

[6-8]

대정친목회 신년연(新年宴)

대정친목회 신년연-기보와 같이 대정친목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경성호텔에서 신
년연회를 열었는데 내빈 중 관리 측으로는 미즈노(水野) 정무총감 이하 각 부 국장 및
각 경찰서장이요, 조선 귀족으로는 이완용 후 이하 서너 명의 귀족과 민간 측으로는 미
노베 순기치(美濃部俊吉) 조선은행(鮮銀) 총재 이하와 경성기자단 등을 합하여 무려 90
여 명에 달하였다. 동 회 회장 민영기(閔泳綺) 남작의 축사와 미즈노 정무총감의 답사가
있은 뒤 4시 반경에 산회하였더라.

〈출전 : 大正親睦會 新年宴, 『朝鮮日報』, 1921년 1월 14일〉

[6-9]

대정친목회 확장

대정친목회 확장 - 대정친목회에서는 근일 회규를 확장하고 종래보다 5부 부장과 상
담역 고문을 증설하여 제반 사업에 착수한다는데 금회에 피선된 인명은 다음과 같더라.

고 문 조선은행	총재 미노베 순기치(美濃部俊吉)
고 문 식산은행	두취(頭取) ¹⁴⁾ 아리가 미즈토요(有賀光豊)

14) 두취(頭取)는 은행장을 뜻함.

고 문	자작 민영휘(閔泳徽)
고 문	남작 이운용(李允用)
상담역 한성은행	중역 백완혁(白完赫)
상담역 경성부윤	사이토(齋藤禮一)
상담역 조선상업회의소	부회장 스즈키(鈴木外次郎)

그 외에 증부(增部)된 부명과 각 부장은 다음과 같더라.

조도(調度)부장	주성근(朱性根)
사업부장	권병하(權丙夏)
조사부장	전성욱(全聖旭)
서무부장	미정
사교부장	미정

〈출전 : 大正親睦會 擴張 『朝鮮日報』, 1921년 1월 14일〉

[6-10]

대정친목회의 신활동

대정친목회는 1916년에 조직되어 고 조중응 자작이 두취(頭取)가 되고 오로지 내선유회에 노력하였음은 세인들이 알고 있는 바라. 그러나 동 회는 성립된 이래 뚜렷한 활동을 보지 못하고 소요사건¹⁵⁾이 발기하며 조자(趙子)¹⁶⁾가 흥거하여 유명무실의 형태에 있더니 현 회장 민영기(閔泳綺) 남작 및 간부 등은 이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난번에 누차 회의를 거듭하여 모임의 발전책과 함께 활동방침을 협의한 결과 드디어 그 할바를 작성하기로 하여 어제 13일 신년연회를 겸한 대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유력한 일본인을 초대한지라.

15) 3·1만세운동을 일컬음.

16) 조중응을 가리킴. 조중응은 1919년 8월 25일 사망했다.

동 회는 원래 조선인만의 단체로 만들었으나 지금 이후로는 일본인도 회원에 가입케 하여 조선인이 자진하여 내선융화를 촉진함이니 원래 내선융화라 함은 일본인 측에서만 창도해 오던 바를 이후로는 조선인 측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촉진케 함에 있는지라. 그 외 기타 사업으로는 2종의 계획이 있으나 이것은 추후 보도하고자 하며 이번에는 그 주의강령 및 임원의 명단만을 기록하고자 한다.

주의(主義)

본 회는 실력 양성을 주창하고 내선인의 융화를 계획하여 동양 전 민족의 번영과 강령을 바람으로써 목적함

강령

- 내선인(內鮮人)이 상호 친목하여 덕업을 상려(相勵)하고 환난을 상구(相救)할 것
- 산업 발달 증식에 노력하여 생활을 안고건전(安固健全)케 할 것
- 교육 보급에 노력하고 문화 향상에 공헌할 것

▲ 회장 민영기(閔泳綺) ▲ 부회장 조진태(趙鎭泰) ▲ 평의장 한상룡(韓相龍) ▲ 이사 예종석(芮宗錫) 외 14명 ▲ 평의원 백완혁(白完赫) 외 29명 ▲ 고문 후작 이완용(李完用), 자작 민영휘(閔泳徽), 남작 이운용(李允用), 마즈나가(松永武吉), 미노베 순기치(美濃部俊吉), 가토(加藤房藏), 아리가 미츠토요(有賀光豊) ▲ 상담역 백완혁(白完赫), 사이토(齋藤禮三), 스즈키(木外次郎) ▲ 서무과장 미정 ▲ 조도(調度)부장 주성근(朱性根) ▲ 사업부장 권병하 ▲ 조사부장 전성욱 ▲ 사교부장 미정

〈출전 : 大正親睦會의 新活動, 『每日申報』, 1921년 1월 14일〉

[6-11]

실력주의 기치하에 주의와 강령을 선언한 대정친목회의 신기치

실력주의 기치하에 주의와 강령을 선언한 대정친목회의 신기치,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시내 경성호텔에서 성대한 신년연회 겸 간담회를 열었던바 미즈노(水野) 총감 이하 관민 이백여 명이 모여

대정친목회는 사회의 □경하는 신□을 다시 당하여 신시대 전 인류의 요구에 적응할 실력주의를 표방하여 동 회의 주장과 강령을 선언하고자 그저께 13일 오후 3시에 경성 호텔에서 성대한 신년회합을 열었다. 오후 2시부터 귀족과 실업가 고관□□□ 망라한 회원이 구름같이 회집하기 시작하여 친목회장 민영기(閔泳綺) 남작과 부회장 조진태(趙鎭泰) 씨를 위시하여 평의장 평의원 제위는 □□하여 왕립하며, 고문으로는 본사 사장 가토 씨를 위시하여 이완용(李完用) 후작, 민영휘(閔泳徽) 자작과 상담역 제위도 한결같이 참석하여 좌우면 응접실에는 회원 대부분을 합하여 이백여 명의 인사가 모였다. 그럭저럭 오후 2시 반이 □오되 미즈노 정무총감이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향기로운 지란(芝蘭)의 좌석에는 구□를 사례하는 인사와 조석상봉하는 후의를 발표하느라고 웃음소리는 끊이지 아니하며 말소리는 □하여 서로 들리었다. 그러한 후에 3시가 조금 지남에 회장은 미즈노 정무총감을 □□일동은 식당으로 인도되어 일제히 착석함에 □□다. 잠시 후 친목회장 민영기(閔泳綺) 남작은 일장의 조선말로 예사(禮辭)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일본어로 간단한 예사를 하였다.

순전한 사교단체 관민의 의심하는 바를 소통하며 내선의 지의를 융화케 하여, 민영기 자작 예사(禮辭)

예사의 대요를 들으면 “오늘 일기가 참 바쁘신 중에 미즈노 총감 각하와 및 제군이 다수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는 실로 감사히 생각하며 매우 영광스러운 줄로 생각하는 바이외다. 본 대정친목회는 1916년 11월 중에 고 조중응 자작과 및 유지의 발기로 성립되어 이렇게 5개 성상(星霜)¹⁷⁾을 경과하는 중 관민 간에 즉□□됨으로 □□한 적이 있었던 바는 아니올시다. 당□에 설립한 회장 조중응 자작이 작고한 후에 3대의 회장으로 본인이 작년 봄에 피임되었으나 본시 식견이 부족한 까닭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발휘된 것은 없으나 동 회를 위하여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은 주야로 □□치□ 하였는지 본회는 정치단체가 아니요 단순히 사교단체이나 이때를 당하여 □□□ 거리끼어 그대로 지내는 것은 본 회의 취지가 아니라는 작심을 가지고, 한편으로 이 회를 확장하며 될 수 있는 대로는 관민이 의구하는 바를 소통하고 내선의 지의□를 파케 하고 □□으니 각위는 고문이나 상담역도 되시고 찬성회원도 되시어 빈빈□회□한 기회를 만드심을 바랍니다”라고 하며 그 다음에는 당일 준비가 완전치 못한 것을 후의로 용서하여 달라고 □사하며 또 그 다음에 일본어로 간단한 예사를 진술하였는바 “옛사람은 50세가 되어서 비로

17) 성(星)은 1년에 하늘을 한 번 돌고, 상(霜)은 1년에 한철 내린다는 의미에서 세월을 뜻함.

소 49년간의 그릇됨을 깨닫는다고 하더니 나는 64세가 되어서 63년의 그릇됨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간담하여 진심을 통한다면 융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나는 오늘부터 어떠한 말이라도 통역을 끼지 아니하고 알 수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에 사투리가 있어서 틀린 곳이 있더라도 잘 들어 주시기를 미리 바랍니다"라고 하였음에 회장에 서는 박수갈채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다시피 되었다.

〈출전 : 實力主義 旗幟下에 主義와 綱領을 宣言한 大正친목회의 新旗幟
『每日申報』, 1921년 1월 15일〉

[6-12]

내선융화를 위해 일대 암시를 보여준 민(閔) 남작의 ‘국어’ 연설, 미즈노(水野) 총감의 조선어 연설, 대정친목회의 총회

어제 보도와 같이 조선인과 일본인의 융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정친목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경성호텔에서 개최되었던 회장 민영기 남작, 고문 이완용 후작 등을 시작으로 이사, 평의원, 고문, 상담역 및 일반회원 외에 내빈으로서 미즈노(水野) 정무총감 이하 총독부 각국과장, 쿠도(工藤) 도지사 이하 각부장, 오노(大野) 군참모, 사이토(齋藤) 부윤, 본정(本町)·종로·창덕궁·용산의 각 경찰서장 기타 京龍(경성과 용산)의 주요한 은행·회사 대표자 및 공직원 등을 포함하여 백여 명이 출석하여 자못 성황리에 오후 4시에 산회하였다. 회의석상에서 민(閔) 회장이 조선어로 인사를 하고 계속하여 회의 취지 및 장래의 발전책을 말하고 최후로 동씨가 64세에 배웠다는(계고(稽古)) 일본어 연설이 있었다. - 감격의 소리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맞이했다.

옛 사람은 오십세가 되어 49년간의 잘못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64세에 이르러 63년간의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간담하여 진심을 통한다면 융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당일 동회에서 발표한 선언서 및 이사·평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선언서

임원

- 이사 예종석(史一煥), 주성근(朱性根), 최강(崔岡), 백형수(白滢洙), 홍은주(洪殷柱), 유해중(劉海鍾), 김용태(金溶泰), 유문환(劉文煥), 방태영(方台榮), 장홍식(張弘植), 나카무라(中村健太郎), 이강혁(李康赫), 권병하(權丙夏), 전성욱(全聖旭)
- 평의원 전성욱(全聖旭), 자작 조대호(趙大鎬), 엄주익(嚴柱益), 윤치호(尹致昊), 조병택(趙秉澤), 홍충현(洪忠鉉), 김한규(金漢奎), 장도(張燾), 유병필(劉秉泌), 안순환(安淳煥), 석진형(石鎭衡), 안영기(安永基), 원덕상(元惠常), 최사영(崔思永), 한용식(韓龍植), 고운묵(高允默), 김동완(金東完), 한익교(韓翼敎), 김용집(金用集), 백시용(白時鏞), 고응원(高應源), 백윤수(白潤洙), 천영기(千英基), 신승균(申昇均), 김성기(金性璆), 박승기(朴承夔), 김영두(金永斗), 김진옥(金鎭玉), 구자욱(具滋旭), 김문환(金文煥)

〈출전 : 內鮮融和の爲に一大暗示を與へた閔男の國語演說, 水野總監の朝鮮語演說, 大正親睦會の總會, 『京城日報』, 1921년 1월 15일〉

[6-13]

대정친목회의 아리요시(有吉) 총감 초대연

대정친목회의 아리요시(有吉) 정무총감 초대회는 1일 오후 4시부터 조신포텔에서 개최되었다. 정각 전부터 죽죽 내려붓는 임우(霖雨)¹⁸⁾를 무릅쓰고 모여든 사람은 귀족 관리, 민간 유지, 신문기자 등 이백여 명이였다. 일동이 착석하자 회장 민영기(閔泳綺) 남작은 방태영 씨를 통역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의 예사를 진술하였다.

“각하와 제군 오늘은 본 회가 아리요시 신임 정무총감 각하에게 환영하는 뜻을 표하는 동시에 회원 제군을 소개하며 또 함께 각하의 (중략) 본회는 지금부터 육년 전에 자작 조중응 씨가 내선융화의 목적으로 일본과 조선 각 방면에 가장 유력한 자를 망라하여 적지 않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총독 각하를 비롯하여 당국 각위와 일본과 조선 각 방면의 유력자가 본회의 취지에 찬성원조하신 결과로, 이 기회에 감사한 뜻

18) 장마를 뜻함.

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 후에 본인이 계승하여 왔는데 당시는 시국이 소요한 때를 당하여 거의 효과를 얻지 못하였음은 심히 부끄럽게 여기는 바이며 이제 인심도 안정하였으므로 다시 제군과 함께 힘써 보고자 합니다. 각하도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셔서 충분히 편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사를 마친 후에 민회장은 일본말로 잔을 들고 “각하의 건강을 축수하나이다”하였다.
(하락)

〈출전 : 大正親睦會의 有吉總監招待宴, 『每日申報』, 1922년 8월 3일〉

[6-14]

대정친목회 개조 창립총회

사단법인 대정친목회는 16일 오후 2시 황금정 귀족회관 내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승인 및 임원 선거를 행하였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본회의 회원은 친목을 돈독케 하고 사회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회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함

강연회, 담화회, 기타 집회

통속 교육에 관한 시설

풍속 개량, 도덕 함양 및 문화 발전에 관한 시설 및 회보의 발행

▲ 회장 남작 민영기(閔泳綺) ▲ 부회장 조진태(趙鎭泰) ▲ 상무이사 예종석(芮宗錫), 이강혁(李康赫), 권병하(權丙夏) ▲ 감사 이진호(李軫鎬), 자작 조대호(趙大鎬), 방태영(方台榮) ▲ 평의원 한익교(韓翼敎) 유문환(劉文煥) 외 28명

〈출전 : 大正親睦會 改造創立總會, 『每日申報』, 1922년 11월 18일〉

7. 조선민사령 개정에 대한 부민 감상에 관한 건

경고비(京高秘) 제2862호

1939년 11월 22일

경기도 경찰부장

경무국장 전(殿)

조선민사령 개정에 대한 부민(部民)의 감상에 관한 건

위 제목의 건에 관해 부민의 감상을 내사하니 다음과 같다. 참고하기 바란다.

(중략)

대정친목회 회장 예종석(芮宗錫)

요지

지원병제도, 교육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실시하는 미나미총독(南總督)은 반도 2천3백만 민중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민사령(民事令)의 개정을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오래된 구습을 타파하고 내선일체의 이상 실현에 맹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반도 민중에게는 진실로 경축할 만한 일이다.

이번 개정에 의해 반도인도 서서히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더한층 견고히 하여 장래의 내선일체 또는 통치라는 말이 소멸에 이를 것이다.

반도인에게 이에(家)의 창립 자유와 성씨 등의 자유를 부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의 개정에 대해서 지난 11월 7일 각료 회의(閣議)에서 결정했다. 조선에서의 제도령(制度令)을 발포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나미총독은 내선일체를 구현하는 하나의 단서로서 이미 육군특별지원병제도 창설과 함께 함께 교육제도도 획기적으로 개혁을 단행하는 등 내선일체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번 반도 2천 3백만 대중이 대망(大望)하는 조선민사령을 개정하는 것은 명실상부하게 참다운 내선일체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감격하고 있다.

원래 조선은 비교적 문화의 진보가 늦어져 몇 가지 누습(陋習)이 잔존하는데 그중에서 이성부양(異姓不養)¹⁹⁾, 동성불혼(同姓不婚), 성씨변경 불가 등은 우생학적 견지에서

보아도 진실로 좋지 않은 점이다. 이것들의 존속은 근대적 반도 민중 특히 적극적으로 내선일체관을 가진 입장에서 순량한 황국적(皇國的) 생활을 영위하고 진보적인 젊은이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사실이다.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개선하는 것은 반도의 중견층의 최고 활동적인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대망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을 불순하게 하는 몇 가지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를 위해 진실로 경축할 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선일체가 실질적으로 완벽에 가까워오고 있음과 함께 멀지않은 장래에는 내선일체 내지 통치라는 말은 필요가 없어질 것이며 반도 민중은 바르게 시국을 인식하여 더욱더 황국신민다운 본분에 맹진해야 할 것이다.

〈출전 : 朝鮮民事令改定ニ對スル部民感想ニ關スル件, 1939년 11월 22일 『思想ニ關スル情勢』 (4)〉

19) 성씨가 다른 자를 양자로 들이지 않는 것. 역주.

IV. 갑자구락부(甲子俱樂部)

1. 갑자구락부 창설 및 선언서 배포에 관한 건

1924년 9월 25일

고경(高警) 제2154호

조선총독부 경무국

갑자구락부 창설 및 선언서 배포에 관한 건

1924년 6월 경성에서 개최된 전선공직자간담회 결의사항을 진정하고자 경성상업회의소 회두(會頭) 와타나베 데이이치로(渡邊定一郎) 등 3명이 도쿄에 갔다. 이 건에 관해서는 당시 보고한 바와 같다. 이들 운동원이 경성에 돌아온 후 여러 번 회합하고 협의한 결과, 앞으로의 운동기관으로 하나의 단체를 영속적으로 존치하기로 하여 경성 거주 공직자와 시민유지가 갑자구락부를 조직하였다. 이후 양 단체를 정리하자는 목소리가 일어났다. 우선 도쿄에서 운동할 당시 하마구치(濱口) 대장성 장관(귀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요망하지 않고 조선에 귀국하여 각 방면의 사정을 충분히 연구하고 실정을 제공하여 정부의 동의를 요구할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조선에서 양 단체 정리에 관해 8월 20일 11항에 걸친 진언서(별지 제2호)를 정무총감에게 제출하는 등 점차 정치적인 색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후 9월 15일 경성부 황금정 귀족회관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위원 16명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 중이던 별지 선언서와 회칙을 심의 결정하고, 당일 이를 인쇄하여 전 조선 공직자와 유지에게 배포하였다. 또 갑자구락부에서는 오는 10월 초순 조선에 오기로 한 각파 대의사(代議士) 일행을 초대하여 먼저 진언할 정리 긴축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발송처 : 내각총리대신, 각 성 대신, 척식사무국장, 경시총감, 후루하시(古橋) 사무관

선언서

일선 양 민족은 원래 동원동종(同源同種)으로 상호 접촉은 필경 종족의 환원이다. 일단 원만한 양해하에 완전히 그 국토를 합병하고 민생을 통일한 이상, 그 결합은 영구히 견고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평등하게 제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혼연 융합하는 것에 있다. 일한병합의 의의는 안으로는 공존공영하고 밖으로는 제후 발전하여 제국의 영원한 기초를 견고히 함으로써 민족 장양(長養)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

이후 서로 장벽을 만들어 대치해온 역사상의 관계는 그동안 스스로 특종(特種)의 국풍과 민속을 만들었고, 문화 또한 동일하지 않아 통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과정으로 기이한 일이 아니다. 생각해보니 처음 우리 총독부가 설치된 지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역대 총독은 힘써 정치(精治)를 도모하였고, 하급관료 또한 열심히 그 직분에 충실하여 훌륭한 치적을 남겼다. 하지만 당초 기대에 비한다면 그 진행은 느려서 아직 갈 길이 멀다. 또 그동안 총독에 따라 시정의 방침도 여러 번 동요하였다. 무단통치나 문화정치를 말하더라도 이는 필경 관련 스스로 입안하고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둘 다 과두정치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피치자(被治者)에게 공통으로 갖추고 있는 특수한 성정(性情)과 이해(利害)를 알아차려 그 핵심에 철저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알게 모르게 선의의 악정에 빠져 인심을 업신여겨 국면을 악화시킨 실례 또한 적지 않다. 선량한 정치는 선량한 생활을 의미한다. 법률제도가 아무리 완전하더라도 대중 서민과 만민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면 선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우리는 한 실례로서 동화를 서둘러 공연스레 풍속을 바꾸려하거나 쓸데없이 외관을 치장하여 한 때를 호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총독정치에는 이러한 유례가 전혀 없지 않다. 관헌만이 만능으로 요로에 자기 사람을 사용하는 폐해는 위압정치, 형식정치, 간섭정치이다. 이는 관민 양해의 길을 단절시키고 경륜을 베풀 수 없다. 직언하면 조선의 문화와 산업에 대한 우리 총독부의 시설은 아직 요소요소에 철저히 못하다. 행정조직 또한 번거로워 오히려 사무의 혼잡만을 초래하여 민간의 불편은 극에 달하고 있다. 요로에 있는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더구나 업적을 예상하지 않는 것은 그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총독의 위치를 동정하고 그 성의를 믿는다. 하지만 역대 전통의 과두정

치는 결코 구가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총독정치도 앞으로 노력하여 언론을 열고 민의를 용인하기를 바란다. 정치적 욕망은 원래 인간의 본능에서 나온다. 이 본능을 억압하지 않고 잘 이끌어 이롭게 하는 것이 예전과 지금의 정도(政道)의 비결이다. 생각건대 합병 초기에 새로운 국민의 적종(適從)을 모르고 인심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총독 독재의 시정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권의(權宜)이지 결코 통치의 상도(常道)가 아니다. 지금은 시세의 추이가 바뀌었고 민간의 자각 또한 당시에 비할 바가 아니다. 천하를 경청하고 민의를 존중하여 시책을 펼쳐야 한다. 조선은 이미 제국의 판도에 들어갔고 1,700만 동포는 제국신민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헌법상의 보장이 균점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이대로 방임한다면, 이는 후일 결렬의 단초가 될지 모른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중대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무관심한 태도로 우리 총독정치를 내버려둘 수 없다. 정치를 논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임무이기도 하다. 관민 공동의 책임을 자각하고 나아가 조선의 시무를 조사 연구하여 그 결론을 얻어 당로(當路)에 진언하고 헌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동지의 의견을 구하고 일치한 바가 있어 갑자구락부를 만들었다. 창립의 이유는 위와 같다. 같이 염려하는 인사들에게 감히 호소한다.

회칙

제1조 본 구락부는 조선통치 및 산업개발에 관한 시세를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해 같이 염려하는 인사로 조직하며 본부를 경성에 둔다.

제2조 본 구락부의 목적을 수행하고 시의(時宜)의 방법을 일임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을 선임하고, 중대 문제는 총회의 논의에 붙인다.

제3조 본 구락부에 가맹하려는 자는 부원 2명 이상의 소개에 의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구락부의 경비는 회원의 각출과 기부금으로 한다.

제1호

진언서

제국정부는 국운의 전도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행정 정리의 근본적인 정리를 단행하기를 바란다. 이미 공공연하게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총독부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시정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재정의 조사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자는 정실

(情實)에 얽매이기 쉽고, 대부분은 과단 결행의 용기가 일반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도 행정재정의 정리를 단행할 때, 그 국(局)에 해당하는 자를 배제하고 다른 국의 사람으로 하여금 지휘봉을 쥐게 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민간 유지자는 총독부의 실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항상 대국적으로 관찰하고 그 완급과 필요성의 여부를 비교 고찰하였다. 총독부 세출 총경비 중에서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종류를 열거하니 참조하기 바란다.

1. 일본인 관리의 가봉(加俸)을 삭제할 것

(이유) 당초에는 가봉 지급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교통기관이 정비된 오늘날, 생활비가 저렴한 조선에서는 그 필요성이 없다. 홋카이도, 오키나와, 잇키(壹岐), 츠시마(對馬), 하치조지마(八丈島)에 근무하는 관리에게 가봉이 없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단지 사택료만을 지급해야 한다. 단 국경방면 또는 특정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한해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도청, 군아(郡衙)를 폐합할 것

(이유) 한국 시대에는 교통이 매우 불편하였다. 오늘날처럼 기차, 자동차, 우편, 전신, 전화 등의 설비가 없어 거의 별세계와 같았고 전국은 8도로 나뉘어 통치되었다. 지금은 도군의 폐합을 실시하여 경비 절약을 도모하고 있지만,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충청남북도의 합병, 황해도의 분할 또한 지리와 교통기관을 참조하여 군아의 폐합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3. 중추원을 폐지할 것

(이유) 조선은 건국의 유래부터 보더라도 제국 본토와 사정이 아주 다르다. 즉 법에 의하면 황가는 7대로 질록(秩祿)을 폐지하였고, 황위는 3대로 폐합되었다. 양반 연공자는 세록(世祿)을 받지 않고 다만 사패(賜牌)가 있을 뿐이다. 병합 당초에는 정치적으로 중추원의 설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조선 민간에서도 그 불필요를 주장하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액의 경비를 투자하여 국가에 직접 공헌하지 않는 중추원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

4. 자치제를 시행할 것

(이유)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민심을 사로잡는 것에 있다. 지방제도가 개정된 지 벌써 4년이 경과되었고, 회의 성적 또한 아주 양호하다. 이제는 소재지에 자치제를 시행하여 민심을 새롭게 하여 자활정신을 일으킴과 동시에 국비 관리를 감소시켜 절약하는 것이 이익이다.

5. 여비를 감액할 것

(이유) 매년 기사 또는 사무관을 다수 외국에 보내고 있다. 관외 여비 항목을 보면 1인당 1만원 전후를 지급한다. 돌아온 자의 다수는 사직 또는 전임하여 조선통치에 공헌하려는 성의가 없다. 소위 위로휴가를 보내는 것과도 같다. 또 연말에는 필요도 없는 의명(依命) 출장의 다수는 여비를 소진한다는 악평을 받고 있다. 여비를 대폭 삭감하여 위로성이 강한 서양행 또는 소모성 여비의 여유를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망한다.

6. 홍삼사업을 개방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게 불하할 것

(이유) 개성산 홍삼은 중국인의 기호에 맞아 아주 유리한 사업이다. 종래에는 계약을 통해 특정인에게 전매시켰기 때문에 총독부는 불리한 입장에 있다. 오히려 공개입찰에 붙여 민간에게 불하하면 조선 상인과 중국 상인으로부터 환영받을 뿐 아니라, 총독부도 이전에 비해 다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7. 보루 광구를 개방하여 대자본가를 유치할 것

(이유) 부원(富源)을 개방하여 대자본가를 유치하는 것이 조선 개발의 급무이다. 우선 평안남북도에서 보루 광구를 개방하여 일본의 대자본가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8. 영림창(營林廠)을 폐지하고 사업을 민간에게 이전할 것

(이유) 영림창의 1924년도 세출액은 2,974,511원이고, 별도로 삼림조사비 43,465원을 지출하였다. 동년도 세입액은 3,394,752원에 불과하다. 즉 376,776원의 이익이 있을 뿐이다. 본 사업을 통해 이 정도의 이익을 얻기보다 오히려 민간에게 사업을 이전하는 것이 좋다. 대자본가를 유치하고 총독부는 삼림 불하만 하면 70~80만 원 이상의 이익이 있다.

9. 사회교화사업을 해당 회사로 이전할 것

(이유) 총독부는 서무부 조사과에 활동사진반을 설치하고 다액의 경비를 투자하여 사회교화사업에 종사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이 주식을 통해 교육보급사를 설립하고 사회교화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 총독부의 사업을 해당 회사로 옮겨 약간의 보조금을 주어 감독하는 것이 경비를 줄이고 오히려 효과가 크다.

10. 잡지 조선을 폐간할 것

(이유) 총독부는 서무부 조사과에 한 계(係)를 두어 매일 잡지 조선을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무미건조하고 시대사상과 맞지 않는다. 구독자는 적고 그 대부분은 증정이나 기증뿐이다. 요컨대 그 효과는 적다. 쓸데없이 경비만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폐간하는 게 좋다.

11. 관리 수를 감소시킬 것

(이유) 총독부의 인원 및 봉급을 보면 친임 2명, 칙임 60명, 주임 1,233명, 판임 10,694명, 더욱이 친임대우 4명, 칙임대우 24명, 주임대우 90명, 판임대우 20,215명, 촉탁 400명, 고원 9,377명, 도합 인원 합계 40,704명이고, 봉급 연액은 33,750,459원이다. 이렇게 많은 인원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 국과 과를 폐합하여 사무를 간소화하고 인원을 대폭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 11항목은 우리 민간 유지자가 수일에 걸쳐 의견을 교환하고 토의한 결과를 각하의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소위 선의의 발동과 애국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부디 이를 양해하시어 2천만 원 가까운 경비를 절약하고 이를 산업개발 방면에 투자하면, 조선의 전도에 광명이 비쳐 우리 동포는 더욱 일신의 혜택을 입을 것이다.

제국의 현상과 대외 관계를 바라볼 때, 관민과 남녀를 불문하고 와신상담과 협동 일치하여 실력을 배양하고 애국의 정신을 고무해야 한다. 결코 구구한 정규(定規)나 관례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갑자구락부를 설립한 민간 유력자의 결합을 도모하고, 조선의 여러 문제를 연구하여 앞으로 총독부에 진언하고자 한다. 요컨대 관민 일치하여 1,900만 명의 행복과 조선의 신속한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독부에서도 각종 문제에 대해 앞으로 하문(下問)이 있을 경우, 우리는 성의로 피력하여 이에 응답하고자 한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인사드린다.

〈출전 : 甲子俱樂部創設並宣言書配布ニ關スル件, 1924년 9월 25일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一般ノ部』(2)〉

2. 갑자구락부 위원회의 건

지검비(地檢秘) 제758호

1924년 9월 16일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가키바라 다쿠로(柿原琢郎)

갑자구락부 위원회의 건

위 제목의 건에 관해 본일 본정(本町)경찰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접했기에 이를 보고한다.

- 기(記) -

갑자구락부 위원회의 건

갑자구락부 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황금정 귀족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출석자는 오무라 모토조(大村百藏), 오오카키 다케오(大垣丈夫),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 아키야마 도쿠지(秋山督治), 후루시로 간토우(古城管堂), 히라야마 도시하루(平山利治), 다카야마 다카유키(高山孝行), 이케다 초지로(池田長次郎), 다케우치 기쿠타로(竹内菊太郎), 나리마츠 미도리(成松綠), 고에즈카 쇼타(肥塚正太), 핫토리 도요요시(服部豊吉), 송달섭(宋達燮), 방규환(方奎煥), 예종석(芮宗錫), 박걸호(朴傑鎬) 등이었다.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를 좌장으로 선출한 후, 초안한 선언 및 회칙을 심의하여 별지 선언서를 정정 결의하고, 이를 인쇄하여 전선 공직자 및 특정 유지에게 배포하여 동지를

모집하였다. 조선 통치 및 산업의 개발에 관한 사무를 조사 연구하면서, 10월 4일 무렵 경성에 입국하는 각파 대의사(代議士) 일행의 방문을 계기로 제1회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동 석상에 대의사를 초대하여 갑자구락부의 결의사항(정무총감에게 제출한 진언서)의 실행을 촉구하기 위한 방안을 의견 교환하였다. 또 제1회 총회를 개최할 때까지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 오오카키, 오무라, 다카야마, 예종석 등 5명을 간사로 선출하여 본회의 사무를 맡기고, 본회의 유지 방법 등을 협의하였다. 본회의 유지 방법으로는 본회 입회자로부터 일시금 30원 이상의 회비를 징수하거나 독지가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이를 충당하기로 결의하고 오후 5시 30분 산회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는 와타나베 데이이치로(渡邊定一郎)와 아라이 하츠타로(荒井初太郎)가 금 500원을 본회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선언서, 회칙 생략

〈출전 : 甲子俱樂部委員會ノ件, 1924년 9월 16일, 『檢察行政事務二關スル記録』(2)〉

3. 갑자구락부 총회 개최의 건

경본고비(京本高秘) 제8802호

1924년 11월 15일

경성 본정(本町)경찰서장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전(殿)

갑자구락부 총회 개최의 건

위는 시국문제와 관련해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돈의동 명월관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출석자는 이케다 초지로(池田長次郎), 다케우치 기쿠타로(竹内菊太郎),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 다카야마 다카유키(高山孝行), 고에즈카 쇼타(肥塚正太), 아사쿠라 가이시게테츠(朝倉外茂鐵), 진나이 모키치(陳内茂吉), 사토 도라지로(佐藤虎次郎), 고모리 도우에몽(小森藤右衛門), 나리마츠 미도리(成松縁), 후지오 나오키(藤尾直勝),

오와 요지로(大和與次郎), 송달섭(宋達燮), 조병상(曹秉相), 예종석(芮宗錫) 등으로 일본인 13명, 조선인 3명이었다. 당심위원(當審委員) 이케다 초지로가 좌장으로 선출되었고, 히라야마 도시하루(平山利治)의 정식 탈회 발표와 동시에 신입회원인 사토 도라지로, 고모리 도우에몽, 스에모리 도미오(末森冨雄), 송재영(宋在榮) 4명의 입회를 발표하였다. 10월 20일 다카하시 쇼노스케가 제안한 7항목을 둘러싸고 협의하였는데, 제1항 조선철도를 철도성으로 이관하는 건에 대해서는 다수가 반대하였다. 즉 일본의 철도부설사업을 보면 유력자가 있는 부현(府縣)은 의도대로 부설되는 악폐가 있다. 그런데 선철(鮮鐵)을 철도성으로 이관하더라도 조선에 참정권을 확장하지 않는다면, 철도의 완성을 기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조선총독부가 직영하는 것이 양책(良策)이라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조사 연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밖에도 중의원 의원선거법, 선거구의 확장, 귀족원령 개정의 건, 법무국의 사무를 사법성으로 이관하는 건, 체신국 사무를 체신성으로 이관하는 건, 식산국의 사무 일부를 지방장관의 권한으로 귀속시키는 건 등에 대해서도 속의가 이루어져 다수가 모두 찬성하였다. 그 의사(意思)의 주요한 것을 열거하면, 자치제의 설립에 대해서는 부협의회 및 학교조합회와 같은 곳에 자치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구 한국시대에 지방의 향약소와 유사한 것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 또 귀족원령을 개정할 때는 조선 귀족을 그 대상으로 올려야 한다. 이밖에도 조선 법무국의 사무는 예전부터 정폐(情弊)에 흐르기 쉽기 때문에 사법권의 엄정함을 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식산국의 사무 중에서 지방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수산 사무와 같은 것은 도지사가 취급하고, 총독부는 단순히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불합리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일본과 동일하게 지방장관의 권한에 속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에 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담당위원 2~3명씩을 선출하여 진정 및 교섭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오후 6시에 산회하였다.

동일 결의서는 지금 작성 중인데, 빠른 시일 안에 완성하고 인쇄하여 관계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결의서는 인쇄 중이어서 추후 송부하겠다.

이를 보고한다.

발송처 : 국장, 부장

〈출전 : 甲子俱樂部總會開催ノ件, 1924년 11월 15일, 『檢察行政事務二關スル記録』(2)〉

4. 갑자구락부 총회 개최에 관한 건

경본고비(京本高秘) 제684호

1930년 2월 5일

경성 본정(本町)경찰서장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전(殿)

갑자구락부 총회 개최에 관한 건

갑자구락부는 지난번 조선학생사건과 관련해 총회를 개최하여 일부 민간 유지의 책동에 반대함과 동시에 조선교육의 근본을 논의할 것을 건의하고자 간사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당시는 아직 학생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만일 갑자구락부의 태도에 대해 비난이 일어나면, 앞으로 정치를 논하는 데 커다란 지장이 있다며 총회 개최를 중지하였다. 이제 동 사건도 대체로 사법당국자의 태도가 결정됨에 따라 진정되자, 조선의 장래에 대한 교육방침을 결정하여 당국에 진정해야 한다며 몇 가지 의안과 함께 2월 4일 오후 6시부터 갑자구락부 간사회를 개최하였다. 출석자는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 외 5명이었다. 교육방침에 관해 대체적으로 협의하고 이어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일 시 : 2월 4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2. 장 소 : 경성부 장곡천정 갑자구락부
3. 출석자 : 24명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 스즈키 가이지로(鈴木外次郎), 나리마츠 미도리(成松緑), 히라이 구마사부로(平井熊三郎), 조병상(曹秉相), 이케다 초지로(池田長次郎), □□□□, □□□□, □□□□, 오와 요지로(大和與次郎), 나카무라 후미카즈(中村郁一), □□□□□, □□□□, 사토 요네지로(佐藤米次郎), 사카이 세이노스케(酒井政之助), 윤기진(尹基診), 우라타(浦田多□□), 전성욱(全聖旭), 후지무라 다다스케(藤村忠助), 후지이 간이치(藤井貫一) 외 2명

4. 의안

- (1) 1929년도 결산보고 및 1930년도 세입출예산 승낙의 건
- (2) 신입회원 승인의 건
- (3) 간사 개선(改選)의 건
- (4) 교육근본방침에 관한 건

5. 의사의 개요

간사 나치마츠 미도리는 1929년도 결산(수입 1,097원 11전, 지출 478원 77전) 보고 및 1930년도 세입지출 예산(세입출고 1,604원 88전)을 발표하여 그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신입회원 9명의 가입을 승인하고, 항례에 따라 스즈키 가이지로를 좌장으로 교육근본방침의 심의에 들어갔다.

간사 나치마츠 미도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학생사건에 관해서는 당시 갑자구락부 이외에 5단체의 총회를 개최하여 연구를 거듭하였지만, 시사문제에 대한 언급은 당분간 피하자며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재는 대체로 그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으므로 총회를 개최하여 학생사건 발발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탐구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위정자에게 이를 진언하는 것이 우리 갑자구락부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 주요 원인은 ① 교육에 대한 당국자의 통치방침 결함, ② 언론신문의 정책적 선전, ③ 교육의 소질 부족 등이다. 그중에서 제1항은 가장 유의할 사항이고, 제2항은 경무당국자의 단호한 처분이 필요하다. 제3항은 교원 사이에 군선(軍扇)을 학생 측에게 휘두르는 일이 있는데 이는 정말로 한심하지 그지없다. 이밖에도 중학교 이상의 학교가 많은 것도 문제이다. 고등유민(高等遊民)을 만들지 말고 실업교육방침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케다 초지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시 갑자구락부는 학생에 대한 엄벌주의를 주장했지만, 일부 민간 유지 중에는 온정주의를 주장하여 손발이 맞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는 양자 간에 연락이 없고 의사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회에 폭로한 것이다. 당국자도 어떤 방침을 채택할지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는 민족의식이 가미된 것이므로 곧바로 태도를 결정할 바가 아니다. 우리 갑자구락부가 이 문제의 심의를 중지한 것은 현명했다고 생각한다. 민족주의가 농후한 문제에 대해서 일부 유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앞으로 화근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다시 이런 문제에 개재하지 않도록 일부 유지에게

충고할 필요가 있다. 갑자구락부 회원으로서 지난번 조선히텔에서 개최된 간담회에 출석한 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조병상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 사건은 학생의 진의가 아니라 일부 선동자의 책동에 의한 것이다. 이를 구제하는 것이 갑자구락부의 체면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갑자구락부원이 조선히텔의 회합에 출석한 것에 반대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야기된 학생사건은 학교 당국의 책임 및 학교를 통괄하는 경무 당국의 책임이 크다. 조선의 교육방침의 근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① 학교 교원의 소질개선-교사는 소요를 조정할 의사가 없다.

② 실업교육의 보급-고등유민만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하략)

〈출전 : 甲子俱樂部總會開催二關スル件, 1930년 2월 5일, 『思想二關スル情報綴』 (2)〉

5. 갑자구락부 간사회 개최에 관한 건

경본고비(京本高秘) 제750호

1930년 2월 8일

경성 본정(本町)경찰서장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전(殿)

갑자구락부 간사회 개최에 관한 건

갑자구락부는 2월 4일 총회를 개최하고 교육문제와 기타에 관한 논의를 거듭한 결과, 교육문제에 관해서는 간사 10명을 선출하여 조사 연구한 후에 보고하기로 결의하고 산회하였다. 이어서 2월 7일 오후 2시부터 위원회를 갑자구락부에서 개최하였다. 출석자는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 나리마츠 미도리(成松縁), 이케다 초지로(池田長次

郎), 히라이 구마사부로(平井熊三郎) 등 5명이었다. 논의를 거듭한 결과, 결의안을 작성하여 오는 2월 13일 오후 3시부터 동 구락부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하고 당국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다음오후 5시에 산회하였다.

결의안

조선의 교육개혁에 대해 다음 각 항에 따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요망한다.

1. 현재 중등학교 졸업자는 취직의 길이 막혀 결국 고등유민(高等遊民)이 되어 사회에 큰 해독을 끼치고 있다.

(중략)

이번 학생소요사건을 ‘필요 없는 자는 퇴보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전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다. 거의 그들 전부는 졸업 후 자기 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봉급생활이 주목적이다. 만약 그 사회가 이들 졸업자에게 상당한 직장을 주어 대우한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2. 당국은 일정한 교육방침에 의거하여 학교당국자에게 학칙을 엄수하도록 하고, 만약 위반자가 생겼을 때에는 그 직원과 학생을 불문하고 지극히 엄정하고 명확한 방법에 따라 곧바로 처단할 필요가 있다. 종래 중등학교의 동맹휴교 발생에 대해 당국자는 학생 측에 동정하여 잘못 조치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학생은 곧바로 엄정한 직원을 배척하여 우량한 직원도 결국 희생당한 일이 적지 않다. 이번 학생소요사건도 그 뒷면에는 교칙을 무시하고 학생의 동요에 영합하거나 심지어 이를 선동한 직원이 과반수를 점한다. 이를 교칙에 따라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직원은 주의자 또는 그 소질이 불량한 자인가 하면 꼭 그렇지 않다. 주변의 환경에서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행위일 뿐이다. 이번 소요사건을 확대시킨 중대 원인의 하나는 당국의 조치가 엄정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

3. 조선의 현상을 바라보면 현재 중등학교 교육을 축소하고,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필요한 실업교육 또는 직업교육의 충실을 도모하여 지방청년의 도시 집중을 방어함과 동시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결의한다.

2월 7일 갑자구락부

〈출전 : 甲子俱樂部幹事會開催ニ關スル件, 1930년 2월 8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 (2)〉

6. 갑자구락부 총회에 관한 건

경본고비(京本高秘) 제750호

1930년 2월 14일

경성 본정(本町)경찰서장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전(殿)

갑자구락부 총회에 관한 건

대(對) 2월 8일자 본호

관내 장곡천정 갑자구락부는 2월 13일 오후 1시 40분부터 동 구락부 총회를 개최하고 조선의 교육정책에 관한 결의안(이미 보도)을 상정하여 논의를 거듭하였다. 출석자는 오와 요지로(大和與次郎), 후지무라 다다스케(藤村忠助), 나리마츠 미도리(成松綠), 안□정(安□靜), 다케우치 기쿠타로(竹内菊太郎), 나카무라 후미카즈(中村郁一), □□□□, 히라이 구마사부로(平井熊三郎), 사카이 세이노스케(酒井政之助), 스에모리 도미오(末森富雄), □□□□,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 이케다 초지로(池田長次郎), 조병상(曹秉相) 등 13명이었다. 오와 요지로를 의장으로 선출하고, 나리마츠 미도리 간사는 총회 개최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다케우치 기쿠타로는 경성에서 중등학교는 아직 적다며 결의안처럼 축소하자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안□정(安□靜)과 스에모리 도미오 두 사람은 실업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나카무라 후미카즈는 결의안의 정신에는 찬성하지만 몇 군데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고, 결의안 이외에 '사회교화'라는 항목을 더한다는 조건으로 찬의를 표명하였다. 조병상은 '교원의 소질개선'의 항목을 삽입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제1항과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 본

결의안은 너무나도 심각하여 당국과 선인 측의 심정에 해를 준다며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결의안의 기초자 나리마츠 미도리는 간사회에서 가결한 원안에 대해 간사인 다카하시 쇼노스케가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극력 원안을 지지하는 등 논의가 백출하여 정리되지 못하였다. 후지무라 다다스케의 제안에 의해 본안은 자구수정위원 3명을 선출하고 수정한 안을 다시 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위원으로 마리마츠 미도리, 나카무라 후미카즈, 조병상 3명을 선출하고 오후 5시 20분 폐회하였다. 이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듭한 끝에 오후 7시 30분 산회하였다.

이상과 같이 결의안의 심의는 의견이 백출되면서 결정되었다. 다음날 오후 2시부터 개최된 경성부협의회에 수정위원 등을 보내 결정되면 곧바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할 것이다.

이를 보고한다.

발송처 : 국장, 부장, 검사정

〈출전 : 甲子俱樂部總會二關スル件, 1930년 2월 14일, 『思想二關スル情報綴』(2)〉

7. 갑자구락부에 관한 건

경본고비(京本高秘) 제750호

1930년 2월 17일

경성 본정(本町)경찰서장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전(殿)

갑자구락부에 관한 건

대(對) 2월 14일 본호 속(續)

갑자구락부의 현안인 조선교육 개선문제는 저번 갑자구락부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결의안을 심의한 결과 위원에게 그 수정을 일임하였다. 2월 15일 구락부는 위원회를 개최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당국에 대한 진정 일시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결의

조선의 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정책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요망한다.

1. 당국은 일정한 방침에 의거하여 직원을 임용 허가함에 있어 그 소질을 엄선함과 동시에 학교에 대한 감독을 주도 엄정히 하여야 한다. 학교당국자는 학칙을 엄수하고 만약 위반자가 생겼을 때에는 직원과 학생을 불문하고 엄정 명확한 방법에 따라 곧바로 처벌할 것을 요망한다.

종래 학교의 동맹휴교 발생에 대해 당국자는 학생 측에 동정하여 잘못 조치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학생은 곧바로 엄정한 직원을 배척하여 우량한 직원도 결국 희생당한 일이 적지 않다. 이번 학생소요사건도 그 뒷면에는 교칙을 무시하고 학생의 동요에 영합하거나 심지어 이를 선동한 직원 또한 적지 않다. 즉 교칙에 따라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직원은 주의자 또는 그 소질이 불량한 자인가 하면 꼭 그렇지 않다. 주변의 환경에서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행위일 뿐이다. 이번 소요사건을 확대시킨 중대 원인의 하나는 당국의 조치가 엄정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

2. 현재 중등학교 졸업자는 취직의 길이 막혀 결국 고등유민(高等遊民)이 되어 사회에 큰 해독을 끼치고 있다.

(중략)

이번 학생소요사건을 ‘필요 없는 자는 퇴보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전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다. 거의 그들 전부는 졸업 후 자기 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봉급생활이 주목적이다. 만약 그 사회가 이들 졸업자에게 상당한 직장을 주어 대우한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3. 조선의 현상을 바라보면 현재 중등학교 교육을 축소하고,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필요한 실업교육 또는 직업교육의 충실을 도모하여 지방청년의 도시 집중을 방어함과 동시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이를 결의한다.

1930년 2월 갑자구락부

〈출전 : 甲子俱樂部二關スル件, 1930년 2월 17일, 『思想二關スル情報綴』(2)〉

8. 갑자구락부 정례 간사회에 관한 건

경본경고비(京本警高秘) 제1958호

1930년 4월 5일

경성 본정(本町)경찰서장

경무국장, 경기도 경찰부장,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전(殿)

갑자구락부 정례 간사회에 관한 건

갑자구락부는 4월 4일 오후 4시부터 구락부 정례 간사회를 개최하였다. 출석자는 나리마츠 미도리(成松綠),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 히라이 구마사부로(平井熊三郎), 후지무라 다다스케(藤村忠助), 이케다 초지로(池田長次郎), 고에즈카 쇼타(肥塚正太), 조병상(曹秉相) 등 7명이었다.

1. 조선에 지방자치제 시행에 관한 건을 나리마츠 미도리가 상정하였다.

(1) 부협의회에 관한 건

본 안은 부윤(府尹)을 시장(市長)으로 변경하고 이를 민선으로 할 것(관선으로 해야 할 경우는 당국의 책임하에 관선으로 하고 민선을 주장할 때는 당국자가 민선으로 할 수 있다), 부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에서 선출할 것(요컨대 '자치제안'에서 부원이 의장을 민선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부의 부협의회, 학교조합회, 학교 평의회 3단체를 합당한 후 회계는 특별회계로 함. 단 의원의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문인데 일단 당국의 의향을 듣고자 한다.

(2) 도협의회에 관한 건

본 안에 대해 현재의 도평의원으로서는 이를 결의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결국 철회되었다.

이상을 통해 자치제 시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에 총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다카하시 쇼노스케는 자치제 시행과 동시에 ①참정권을 조선의 4대 도시에 실시하도록 진언할 것, ②재판소구성법을 조선에 실시하여 조선의 사법관을 사법대신에 직속시키고, 대심원 조선지부장 및 검사장의 친임관(親任官) 임명을 요청할 것, ③체신기관을 일본과 통일하여 체신국을 체신대신의 예하에 둘 것 등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는 후일 다카하시 쇼노스케가 정식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별보(용산 시민대회 결의에 관한 건)를 상정하여 심의한 다음 오후 5시 25분에 산회하였다. 이후 같은 곳에서 만찬을 열었다.

이를 보고한다.

보고처 : 원서(願書)와 같다.

<출전 : 甲子俱樂部定例幹事會二關スル件, 1930년 4월 5일 『思想二關スル書類』 (1)>

9. 갑자구락부 주최 전선시국대회(全鮮時局大會)(기사)

- 오는 10월 2일에 개최하고, 선언과 결의를 할 터

갑자구락부 주최의 전선시국대회는 10월 2일에 개최하기로 되었는데, 당일은 오전 10시에 비행기로 선전 유인물을 뿌리고 오후 1시에 연화를 올려 오후 2시까지 조선신궁 광장에 모이고 신주(神酒)를 배수(拜授)한 후 동 □시에 자동차로 시내를 행진하며 또다시 유인물을 뿌리고 7시 삼월오복점(三越吳服店) 뒤 광장에서 대회를 열고 선언과 결의를 하기로 되었다.

<출전 : 甲子俱樂部 主催 全鮮時局大會, 『毎日申報』, 1931년 10월 1일>

10. 중·일 충돌사건에 관한 관내 상황(제1~3, 5~7, 9~12보)

경고비(京高秘) 제8402호

1931년 6월 20일

경기도

중·일 충돌사건에 관한 관내 상황(제1보)

소위 나카무라(中村) 사건 발생 이후 일본의 대(對)중국 정책에 이상한 긴장이 보이자, 경성에 있는 갑자구락부 등은 군부와 연락하여 국민의 여론 환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한 바와 같다. 이번 중국 관병(官兵)의 만철연선의 철도파괴를 계기로 질풍迅雷(疾風迅雷)와 같은 군사행동이 이루어졌다. 그 상황은 신문 호외를 통해 보도되었고, 일본, 조선과 중국(內鮮支) 모두 많은 충동(衝動)을 받아 지금은 본 건과 관련된 담화만이 꽃을 피우고 있을 정도이다. 지난번 조선인과 중국인 간의 사건 직후라 관계도 있어 혹시 감정이 격발(激發)하여 불상사가 야기될 염려도 있다. 이에 엄중 사찰 경계중이다. 지금 관하 일반을 통해 치안상으로는 아무런 변이(變異)는 없지만, 각 방면의 감상과 기타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통보)한다.

1. 갑자구락부

9월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갑자구락부는 이번 충돌사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다. 오는 20일 조선히otel에서 공직자와 정총대(町總代) 등을 망라한 시국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오후 7시 30분에 산회하였다. 또 석상에서는 외교방면에 대한 성명서를 작성 발표하지는 의안이 제출되었지만 결정에 이르지 못하고 해산하였다.

(하략)

<출전 : 日支衝突事件ニ關スル管内狀況(第一報), 1931년 6월 20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1)>

경고비(京高秘) 제8402-2호

1931년 6월 20일

경기도

중·일 충돌사건에 관한 관내 상황(제2보)

제목에 관한 관내 상황은 이미 보고(통보)하였다. 최근 포악한 중국 관민의 일본을 모욕하는 태도에 대한 국민 일반의 여론은 강경한 대(對) 중국 외교를 고창하고 있다. 양군(軍)의 충돌은 일본, 조선, 중국(內鮮支) 모두에게 많은 충동(衝動)을 주어 그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소위 무저항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폐기 없는 태도로 사건은 의외로 빨리 해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반 조선인은 오히려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사건의 확대를 바라는 논조의 말을 일삼는 자도 있다.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에서도 경계가 엄중해지고 한편으로 본 사건은 조선인과 중국인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양자 사이에 거의 문제될 만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재류 중국인도 최근 경제계의 불황으로 인해 취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일부 자유노동자는 이번 기회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귀국한 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 평상시대로 각자 일로 돌아가고 있다. 도내는 아주 평온한 상태이지만 계속하여 엄중 사찰 경계중이다. 이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통보)한다.

1. 갑자구락부

경성 갑자구락부는 9월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구락부에서 이번 일중군 충돌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긴급 간사회를 개최하였다. 협의 결과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갑자구락부 이외에 상공회의소, 부의회원, 도평의회원, 은행집회소 관계자, 경성사상(卸商)연맹, 성공조합연합회, 대정친목회, 국민협회, 동민회, 정동총대(町洞總代)의 일부, 기타 유지 발기인들로 9월 20일 오후 2시부터 조선히otel에서 시국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예정대로 20일 오후 2시부터 호텔에서 앞의 단체 관계자 30명이 모여 구기모토 도지로(釘本藤次郎)를 좌장으로 나리마츠 미도리(成松綠), 히라이 구마사부로(平井熊三郎), 조병상(曹秉相), 고에즈카 쇼타(肥塚正太), 박춘금(朴春琴), 이케다 초지로(池田長次郎) 등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만몽문제를 해결할 시기가 없다는 강경한 의견을 주장하였다. 중앙정부 요로 관계자에게 격려전보를 보내고 출정군대에게는 위문전보를 발송하

기로 하였다. 더욱이 전 조선에서 일제히 시민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결의하고, 출석자 전원이 그 위원이 되기로 결정한 다음, 오후 5시 15분에 산회하였다. 이들 위원은 오늘(21일) 오후 2시부터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할 예정이다.

(하략)

〈출전 : 日支衝突事件ニ關スル管内狀況(第二報), 1931년 6월 20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1)〉

경고비(京高秘) 제8402-3호

1931년 9월 22일

경기도

중 · 일 충돌사건에 관한 관내 상황(제3보)

제목의 건에 관해서는 누차 보고한 바와 같이 도내 상황은 아주 평온하다. 하지만 다년간에 걸친 포악한 중국 관민의 일본을 모욕하는 태도와 조선농민 압박 등에 대한 국민 일반의 분개는 이번 기회에 우리의 권익보호를 위해 군부의 주장대로 단호하게 매진해야 한다는 강경한 여론으로 기울고 있다. 한편 만주에서의 우리 권익과 이해가 상반하는 러시아는 이번 기회에 일중 간의 분쟁을 더욱 확대시켜 일본이 궁지에 빠지고, 그 사이를 틈타 중국과 일본의 적화를 도모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계속하여 엄중 사찰 경계 중이며, 이전 보고 이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통보)한다.

1. 갑자구락부의 동정

경성 갑자구락부는 예정대로 9월 21일 오후 2시부터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출석자는 25명이었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만몽의 화근을 섬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은 주저할 시기가 아니라, 다만 실행이 있을 뿐이다. 더욱이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당국을 격려하여 목적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실행위원 10명을 선정하고, 또 한편으로 마에다 노보루(前田昇), 한상룡(韓相龍), 나리마츠 미도리(成松綠), 진나이 모키치(陳內茂吉), 고에즈카 쇼타(肥塚正太) 등 5

명을 선정하여 시국에 관해 당국에 진언하기로 결정하고 4시 30분 폐회하였다. 이들 5명의 위원은 예정대로 오늘(22일) 오전 9시 총독부와 경기도지사를 방문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하략)

〈출전 : 日支衝突事件ニ關スル管内狀況(第三報), 1931년 9월 22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1)〉

경고비(京高秘) 제8402-5호

1931년 9월 23일

경기도

중 · 일 충돌사건에 관한 관내 상황(제5보)

제목의 건에 관해서는 누차 보고한 바와 같이 도내 상황은 여전히 평온하다. 오늘(23일) 오전 3시경 경성부 평동 15번지 중국인 음식점 왕안장(王安章)에서 조선인 남자 2명이 투석하여 창과 의자를 파괴하고 도주한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과 중국의 시국은 예상 밖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재류 중국인의 불안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 조선인 극좌 분자 등은 일본과 중국 간의 분쟁 확대는 일본제국주의의 압박 아래 신음하는 우리 조선인에게 무언가 활로를 줄 것이라며 극력 분쟁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 재류 중국인을 압박하여 전부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획책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또 갑자구락부와 제국재향군인 경성연합분회 등은 시국대회와 기타 시국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비교적 냉정하던 일반 부민(部民)도 상당한 자극을 받아 점차 강경한 여론이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의 추이를 낙관할 수 없다. 계속하여 엄중 사찰 경계중이며, 이전 보고 이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통보)한다.

(중략)

2. 갑자구락부의 동정

최근 포악한 중국 관민의 일본을 모욕하는 태도와 조선농민 압박 등으로 인해 일본의 대(對) 중국 외교에 이상한 긴장이 생겨났다. 경성 갑자구락부의 비약적인 활동은 각 방

면에 많은 호감을 주고 있다. 시국대회 위원에는 부내(府內) 공직자를 비롯해 가토 게이지로(加藤敬次郎), 아리가 미츠토요(有賀光豊), 후지이 간타로(藤井寬太郎) 등 재계의 유력자 79명이 가담하였고, 경비는 이미 부내 유지들이 390원을 기부하였다. 이번 달 22일 오후 4시부터 갑자구락부에서 제2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국대회에 관해 다음 사항을 협의하고 오후 6시 30분 산회하였다.

- (1) 간사(실행위원) 5명을 증원할 것. 증원 간사는 마에다(前田), 아베(阿部), 와타나베(渡辺), 다니(谷), 신석민(申錫敏).
- (2) 고에즈카 쇼타(肥塚正太)와 조병상(曹秉相) 2명을 교섭위원으로 삼고, 경성제대의 오다(小田) 교수와 교섭, 국제법에 정통한 자를 고문으로 영입할 것.
- (3) 경성에서 전선시국대회를 개최할 것(일시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순).
- (4) 문필이 좋은 자를 채용할 것.
- (5) 지방 주요 도시에서 시국대회를 개최할 것.
- (6) 경성의 대회에 지방으로부터 대표를 파견할 것.
- (7) 주요 도시에 유세원을 파견할 것.
- (8) 만몽에 관한 팸플릿을 작성할 것.
- (9) 이번 달 24일 오후 1시부터 조신히에서 각 신문사 및 통신사와 간담회를 개최할 것.
- (10) 오늘(23일) 오후 4시부터 제3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상의 각 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일반에게 발표할 것.

〈출전 : 日支衝突事件ニ關スル管内狀況(第五報), 1931년 9월 23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1)〉

경고비(京高秘) 제8402-6호

1931년 9월 25일

경기도

중일 충돌사건에 관한 관내 상황(제6보)

제목의 건에 관해서는 누차 보고한 바와 같이 도내 상황은 여전히 평온하여 특이한

점이 없다. 하지만 사변에 대한 갑작스러운 국제연맹 이사회의 간여는 각 방면에 이상한 충동을 주었다. 앞으로 일본과 중국 양국 및 국제연맹 3자 간에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사건의 추이와 더불어 그 행방을 주시하고 있다. 민심의 동향과 그밖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엄중 성찰 취체 중이며, 이전 보고 이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통보)한다.

1. 갑자구락부의 동정

경성 갑자구락부는 이번 달 23일 오후 4시 20분부터 부내 장곡천정 갑자구락부 누사에서 제3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국대회와 관련해 이전에 위원회가 결정한(제5보 참조) 사항을 거듭 협의하였다. 출석자는 고스기(小杉濇人), 구기모토 도지로(釘本藤次郎),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健太郎), 나리마츠 미도리(成松綠), 조병상(曹秉相), 아리가 미츠토요(有賀光豊) 등 39명이다. 고에츠카 쇼타(肥塚正太)를 좌장으로 제2회 위원회에서 결정한 각 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제3안인 경성에서의 시국대회 개최 건은 재향군인연합분회가 이번 달 27일에 만몽권익옹호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그 시기를 보면서 거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극력 재향군인의 계획을 원조하기로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 전부 위원회의 결정대로 가결하였다. 이어서 당국을 방문하여 시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진정하였다. 마에다 노보루(前田昇) 위원이 대표하여 그 경과를 보고하였는데, 대체로 군부 측이 제3국의 간섭을 염려하므로 간섭을 일축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극력 여론을 고조시키도록 간원(懇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협의를 거듭하였다. 이번 달 21일 구락부 앞으로 간도훈춘내선연합민회로부터 '간도사태가 급박하므로 신속히 당국에 출병을 요망하고 동포의 구조를 바란다'는 요지의 탄원전보가 도착하였다. 실정에 비추어 이번에 간도총영사에게 격려전보, 간도훈춘내선연합민회에는 위문전보를 타전하고자 다음과 같은 전문을 결의하였다. 나리마츠, 이케다 초지로, 히라이, 마에다, 조병상 등 5명의 위원은 총독을 방문하여 간도 재류민 보호에 대해 유감이 없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진정하였다. 또 전선의 주요도시에 발송할 통문을 결정하고 오후 6시 10분에 폐회하였다.

(1) 간도총영사에게 보낸 전보

금지(鎭地)의 치안이 지금 급박한 위기 상태라고 들었다. 우리는 귀관의 영단으로 4십만 동포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욱 노력해주기를 열망한다.

(2) 간도 훈춘 내선연합민회에 보낸 전보

갑자구락부에 도착한 전보를 보고 정말로 동정한다. 오늘 위원총회 결정으로 총독에게 진정(결과는 다시 알리겠음)하였다. 오카다(岡田) 총영사에게 타전하여 만전의 대책에 노력하기를 바란다.

(3) 전선(全鮮) 주요도시에 발송한 통문

이번 일본과 중국 간의 충돌사건은 결코 방관할 수 없다. 우리는 이를 좌시할 수 없어 우국의 동지와 논의하여 시국대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이를 통해 적성(赤誠)을 피력하여 정부를 편달(鞭撻)하고 여론을 환기하고자 한다. 모든 천하에서 동지를 모아 기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다년간 퇴적되고 정돈(停頓)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 나아가 금후의 만몽대책에 대해 백년지계를 수립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 지금이 천혜적인 일대 호기(好期)라고 생각한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과 중국 양국 간에는 일어난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 그들은 모욕적이고 우롱하는 말을 일삼고 모순된 말로 야유를 보냈다. 이번 충돌은 원래부터 그들의 도전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되었다. 우리는 다년간 눈물을 머금고 은인자중하던 의분(義憤)을 결코 참을 수 없다.

문제의 해결 여부가 우리의 안위존망을 가늠하는 중대한 시기(時機)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 제국의 만몽에 대한 권익은 근거로부터 쌓인 소위 원수의 한을 양값음하는 것과도 같다. 우리는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여 사건을 유리하게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감하여 감히 이런 글을 통해 귀 지방에서 동감하는 인사들과 일치 협력하여 정부를 독려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9월 23일

경성시국대회

<출전 : 日支衝突事件ニ關スル管内狀況(第六報), 1931년 9월 25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1)>

경고비(京高秘) 제8402-7호

1931년 9월 26일

경기도

중·일 충돌사건에 관한 관내 상황(제7보)

제목의 건에 관해서는 누차 보고한 바와 같이 도내 상황은 여전히 평온하여 특이한 점이 없다. 중국 북부의 상황은 아군의 질풍신뢰(疾風迅雷)와 같은 활동에 따라 점차 평정을 되찾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의 배일적 기운이 극도로 악화되어 남부의 홍콩, 천진 등지의 방인(邦人)을 위협 압박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이 신문지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국제연맹의 간섭과 더불어 앞으로의 향방에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 변화의 영향은 곧바로 선내에 파급할 것이므로 전도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계속하여 엄중 사찰 취체 중이며, 이전 보고 이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통보)한다.

1. 갑자구락부의 동정

경성 갑자구락부를 주체로 한 시국대회의 동정에 관해서는 누차 보고한 바와 같다. 지난 25일 오후 3시 20분부터 제4회 위원회를 열어 시국대회 개최에 관해 협의하였다. 출석자는 히라이 구마사부로(平井熊三郎), 나리마츠 미도리(成松綠), 후지무라 다다스케(藤村忠助), 고에즈카 쇼타(肥塚正太), 도지마 유지로(戸嶋祐次郎), 이케다 초지로(池田長次郎), 아베 요시오(阿部良夫), 신석린(申錫麟), 예종석(芮宗錫) 등 9명이었다. 다음 사항을 협의하고 본일(26일) 오후 3시부터 위원총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5시 50분에 산회하였다.

(1) 일시

10월 2일 오후 7시부터 전선시국대회를 개최할 것

(2) 장소

경성 미츠코시(三越) 옆의 빈터(우천 시에는 공회당 또는 경성부 사회관)

(3) 선전 방법

오후 1시부터 불을 피우고 2시부터 위원은 정장차림으로 조선신궁을 참배한다. 이후 자동차 30대에 분승하여 경성부청, 경기도청, 총독부를 거쳐 종로를 돌아 동대문, 황금정, 남대문에서 경성역전을 경유하고 용산을 한 바퀴 순회하여 다시 회장으로 돌아온다. 비행기로 5만 장의 선전 유인물을 살포하고, 자동차 앞에는 히노마루 국기를, 차체에는 국민정신을 작흥하는 문구를 각각 단다. 오후 7시부터는 지정된 장소에서 일반 유지가 시국에 관해 5분간 연설한다. (변사불명(辯士不明))

〈출전 : 日支衝突事件二關スル管内狀況(第七報), 1931년 9월 26일, 『思想二關スル情報綴』(1)〉

경고비(京高秘) 제8402-8호

1931년 9월 29일

경기도

중 · 일 충돌사건에 관한 관내 상황(제9보)

제목의 건에 관해 이미 보고(경시청 제외)한 이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통보)한다.

1. 갑자구락부의 동정

경성 갑자구락부를 주체로 한 시국대회는 예정대로 9월 26일 오후 3시부터 위원총회를 열어 전선시국대회의 개최에 관해 협의하였다. 출석자는 18명이었다. 제4회 위원회에서 협의한 모든 안건을 가결했지만, 위원총회에 출석한 자가 의외로 소수여서 기세가 오르지 않은 형상이다. 위원에 청년단 간부를 가입시키고, 각 계원(係員)에는 위원 전원을 할당하기로 결의한 다음 오후 5시 40분에 산회하였다.

(하략)

〈출전 : 日支衝突事件二關スル管内狀況(第九報), 1931년 9월 29일, 『思想二關スル情報綴』(1)〉

경고비(京高秘) 제8402-9호

1931년 9월 30일

경기도

중 · 일 충돌사건에 관한 관내 상황(제10보)

제목의 건에 관해서는 누차 보고한 바와 같이 도내 상황은 여전히 평온하여 특이한 점이 없다. 이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통보)한다.

1. 갑자구락부의 동정

경성 갑자구락부를 주체로 한 시국대회는 시국에 관해 만몽에 가장 많은 이해(利害)가 있는 조선에서 기세를 올리지 않는다면, 일본의 기세를 양양시킬 수 없다. 누차 보고한 바와 같이 갑자구락부는 오는 10월 2일 경성에서 전선시국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선전 유인물 5만 매를 인쇄 살포하고, 또 시국에 관한 강연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시국대회는 예상을 빚나가 지지부진하다. 일반 여론은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점차 평정을 되찾아 기세가 오르지 않았다. 이에 9월 27일부터 간부는 거의 사무실에 칩거하면서 협의 중이다. 9월 28일 오후 2시부터는 간사인 나리마츠 미도리(成松緑), 후지무라 다다스케(藤村忠助), 고에즈카 쇼타(肥塚正太) 3인은 재경 각 신문사와 방송국을 방문하여 성원을 의뢰함과 동시에 각 위원들의 자택을 방문하여 전선시국대회 당일에는 출석하도록 권유하였다. 또 부내(府內) 각 정동총대(町洞總代) 임원에 대해서도 위원 추천을 통고하는 등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9월 26일 위원총회에서 결의된 대회 당일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선전계

고에즈카 쇼타(肥塚正太), 조병상(曹秉相), 이와나가 히로시(岩永浩), 예종석(芮宗錫), 후지무라 다다스케(藤村忠助), 소가 쓰토무(曾我勉), 스기 이치로베이(杉一郎平), 가토 세이에몽(加藤清右衛門), 박영근(朴永根), 박춘금(朴春琴), 다카노 에이치(高野永治), 김윤정(金潤晶), 이승우(李升雨), 유문환(劉文煥), 어담(魚潭), 박두영(朴斗榮), 오노 규타로(小野久太郎), 백완혁(白完赫), 박영철(朴榮喆), 신 타쓰마(進辰馬), 닛타 토메지로우(新田留次郎), 박승직(朴承稷), 김용제(金容濟), 요네모리 토미요시(米森富良), 김명준(金明

瀧), 이병렬(李炳烈), 나카지마(中島越之助)

회장계(會場係)

다이노 준타로(代野順太郎), 신석린(申錫麟), 코스기(小杉謹八), 이케다 초지로(池田長次郎), 코조 카메노스케(古城龜之助), 오오노 시로(大野史郎), 장헌식(張憲植), 이시하라 이소지로(石原磯次郎), 진나이 모키치(陣內茂吉), 아라이 하츠타로(荒井初太郎), 한상룡(韓相龍), 모리 고이치(森悟一), 마츠이 후사타로(松井房次郎), 마에다 노보루(前田昇), 호리 세이이치(堀正一), 무샤 렌조(武者鍊三), 타니타 요시마(谷多喜麿), 마츠오카 마사오(松岡正男), 사메지마 소야(鮫島宗也)

서무계

나리마츠 미도리(成松縁), 마쓰다 미호(増田三穂), 하리모토 토지로(針本藤次郎), 시마자키 류이치(島崎龍一), 이토 마사키(伊藤正懿), 아베 요시오(阿部良夫), 히라이 구마사부로(平井熊三郎), 와타나베 테이이치로(渡邊定一郎),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建太郎), 코조(古城管寶), 원덕상(元惠常), 민대식(閔大植), 가토 게이자부로(加藤敬三郎), 아리가 미츠토요(有賀光豊), 스미이 타츠오(住井辰男), 츠즈미 에이이치(堤永市), 나카노 다이사부로(中野太三郎), 후지이 간타로(藤井寛太郎), 곤도(權藤四郎介), 사이토 고키치(齋藤吾吉)

행렬계

이마무라 이사부로(今村伊三郎), 이와모토 운뎨(岩本運平), 도시마 유지로(戸嶋祐次郎), 나가사키 타게조(中崎茂三), 미야모리 타이지(宮林泰治), 야마토 요지로(大和與次郎), 츠즈키 코지(都築康二), 츠지모토 카사부로(辻本嘉三郎), 사이토 마타타로(齋藤又太郎), 후지타 요네사부로(藤田米三郎), 다나카 사부로(田中三郎), 타카이 류자부로(高居龍三郎), 고바야시 겐로쿠(小林源六), 가토 츠네미(加藤常美), 나카야 시게키(中屋重樹), 전성욱(全聖旭), 코오(甲明八次郎)

대회 당일의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결의문

제국의 만몽에 대한 광휘(光輝)한 권익은 위기에 빠졌다. 우리 동양에서 국위 발양의 성업도 여전히 미진하다. 이에 우리는 부동의 국론을 환기시켜 정부를 편달함으로써 만전을 얻고자 단호하게 초심의 관철을 기한다.

〈출전 : 日支衝突事件二關スル管内狀況(第十報), 1931년 9월 30일, 『思想二關スル情報綴』 (1)〉

경고비(京高秘) 제8402-10호

1931년 10월 2일

경기도

중·일 충돌사건에 관한 관내 상황(제11보)

제목의 건에 관해서는 누차 보고한 바와 같이 도내 상황은 여전히 평온하여 특이한 점이 없다. 경성 갑자구락부를 주체로 한 전선시국대회가 드디어 오늘 오후 1시부터 개최 예정이다. 이미 지방에서 경성으로 올라온 자도 있고 착착 준비 중이다. 상당한 기세를 올릴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일반 여론은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점차 냉정을 되찾고 있다. 한편 재류 중국인은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평정(平靜)하여 아무런 동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최근 경제계의 불황과 지난번에 발발한 조선인과 중국인의 충돌사건에 뒤이어 이번의 일본과 중국 양 군의 충돌사건 발생으로 □□□□□□□□□□□□에 빠졌다. 여러 타개책을 강구하지만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일본과 중국의 분쟁이 계속된다면 자연히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군부(郡部)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사건 발생 이후 상품의 반입을 중지하고, 재고품의 정리와 매각대금의 회수에 힘써 언제라도 귀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도 있다. 계속하여 엄중 주의 중이며, 이전 보고 이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통보)한다.

(중략)

4. 갑자구락부의 동정

경성 갑자구락부를 주체로 한 시국대회는 9월 30일 오후 3시부터 갑자구락부 누상에 서 마지막 위원총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일반 여론은 점차 평정을 되찾아 예기(豫期)한 만큼의 기세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수일 전부터 간부들은 열성적인 노력을 기울여 각 위원의 자택을 방문하여 독촉한 결과, 출석자는 아리가 미츠토요(有賀光豊), 나카노 다이사부로(中野太三郎) 등 46명이었다. 구기모토 도지로(釘本藤次郎)를 좌장으로 나리마츠 미도리(成松縁) 간사는 대회 당일의 간사안(幹事案)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다. 좌장은 각 계(係)의 역할을 발표하고 대회결의안(이미 보고함)의 심의에 들어갔지만, 간사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에 수정위원으로 오와 요지로(大和與次郎), 이케다 초지로(池田長次郎), 한상룡(韓相龍)을 뽑아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다.

결의안

제국의 만몽에서의 광휘(光輝)한 권익은 위기에 빠졌다. 우리는 부동의 국론을 환기시키고 정부를 편달(鞭撻)하여 만전의 효과를 얻고자 단호하게 초심을 관철하고자 한다. 이를 결의한다.

10월 2일
전선시국대회

이를 결정하고 대회 당일의 각종 타합을 위해 다음 4명을 총무로 추천하고 오후 4시 40분 산회하였다.

아리가 미츠토요(有賀光豊), 마에다 노보루(前田昇), 다니 다키마로(谷多喜麿), 구기모토 도지로(釘本藤次郎)

대회 당일에 사용할 자동차를 기증한 자는 다음과 같다.

츠즈키 코지(都筑康二) 2대, 사이토 히사타로(齋藤久太郎) 2대, 이케다 초지로(池田長次郎) 2대, 경성제과회사 2대, 분토리 슈지로(分鳥周次郎) 2대

이밖에 대회 당일에는 지방에서 이리 12명을 비롯해 조치원, 신의주, 전주 등지에서 각 수명이 출석하여 상당한 기세를 올렸다.

〈출전 : 日支衝突事件ニ關スル管内狀況(第十一報), 1931년 10월 2일 『思想ニ關スル辭綴』 (1)〉

경고비(京高秘) 제8402호-11

1931년 10월 3일

중 · 일 충돌사건에 관한 관내 상황(제12보)

경성시국대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선시국대회는 예정대로 10월 2일 개최되었다. 당일 오전 10시 비행기로 “눈 떠라! 동포 · 국가를 위해, 국권옹호는 우리의 임무, 일어나라! 국민 · 조국을 위해, 만몽(滿蒙)의 해결은 이 일거에 있다”는 선전유인물 1만 매를 시중에 살포함과 동시에 오후 1시부터 봉화(煙火)수 발을 올려 기세를 올리고 다시 오후 2시부터 조선신궁 광장에 아리가 미츠토요(有賀光豊) 이하 위원 70명, 정동총대(町洞總代) 기타 50명, 지방에서 올라온 이리 12명, 대구 8명, 청진 2명, 나남 1명, 춘천 10명, 공주 1명, 신의주 6명, 성진 1명, 해주 5명, 전주 7명, 會 □□□□ (조선인과 일본인 40명) 참집하여 전(前)□□□□ 아리가 미츠토요 위원을 대표하여 □□□ 봉정(捧呈)……제국만세를 3창하고 신주(神酒)를 배수(拜授)한 후 일동은 준비한 자동차 32대에 분승하여(전부 시국대회의 견장을 두르고 손으로는 국기를 흔들며 자동차 본체에는 전기한 선전 유인물과 같은 표어를 붙이고) 일행은……먼저 경성부청으로부터 경기도, 총독부, 군사령부, 사단사령부 등에 이르러 각 문전에서 만세를 3창하고 다시 구용산에서 동대문을 거쳐 도심을 순회 도중 정거할 때는 선전빠라를 살포하고 오후 5시 삼월횡(三越橫)의 대회장에 이르러 해산했다. 그 간 하등 사고의 발생 등이 없었고, 일행의 시위행렬에 대하여 일반 통행자는 응시하는 눈으로 보는 듯 했지만 부민에게는 예기한 것 같은 감동을 줄 수는 없던 것으로 간취된다. 다시 오후 7시부터 예정과 같이 삼월횡광장에서 시국대연설회를 개최했는데, 회장은 일단 높이 설치되어 배후에 홍백의 막을 드리우고 임시로 전등을 가설하고 입구에는 전선시국대회(全鮮時局大會)라고 표시한 간단한 문을 설치하였다. 확

성기로 의사(議事) 및 강연을 일반이 청취할 수 있게 준비를 완성하였다. 청중은 약 1만 인(그중 조선인 1천 5백 명)에 달하였고 개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입추의 여지가 없기에 이르고, 정각에 이르자 나리마츠 미도리(成松緣)이 개회사를 말한 다음으로 코스키(小杉謹八)이 의장 추천을 의장에 묻자, 만장일치로 경성상공회의소 회두 진나이 모키치(陣內茂吉)을 의장에 추천하였고, 도지마 유지로(戶嶋祐次郎)가 다음 16개소에서 온 축전을 낭독하였고 주마(中馬越之助) 외 14명 재경 □□□□ 만몽의 권익 확보를 위해 국민은 □□□□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열변을 □□□□ 아리가 미츠토요 동의로 결의할 것을 의장에 물어 찬성을 얻고 이케다 초지로(池田長次郎)이 기보(既報)한 결의안을 낭독하여 이를 가결, 마에다 노보루(前田昇)의 발성으로 제국만세를 3창하고 오후 9시 5분에 무사히 산회했다.

〈출전 : 日支衝突事件ニ關スル管内狀況(第十二報), 1931년 10월 3일 『思想ニ關スル事情綴』 (1)〉

11. 갑자구락부의 활동

(상략)

2. 갑자구락부

1924년 7월 경성에서 개최된 전선공직자간담회 결의사항을 진정하고자 경성상업회의소의 와타나베 데이이치로(渡邊定一郎) 등 3명이 도쿄에 갔다. 이들은 경성에 돌아온 후 앞으로의 운동기관으로 상설단체를 조직하고자 간부 간의 협의 결과, 같은 해 8월 먼저 경성 거주 공직자와 시민유지 약 40명으로 정치결사인 갑자구락부를 조직하였다. 설립 목적은 조선 통치와 관련하여 관민 공동의 책임을 자각하고, 나아가 조선에서의 시무(時務)를 조사 연구하여 이를 당로(當路)에 진언하고 현책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선언서에 기재되어 있다. 현재 부원은 일본인 40명, 조선인 12명, 합계 52명(경성 및 지방을 포함)이다. 본 구락부의 창립 당시에는 마침 행정 재무 정리의 문제가 대두하였다. 이에 구락부는 당초 사업으로 행정 및 재정 정리에 관한 진언서를 작성하여 9월 총독부에 제출하였다. 더욱이 같은 해 11월에는 귀족원령 및 중의원의원선거법의 개정 실시, 철도의 직영, 조선에서의 체신사무를 체신성으로의 이관 요망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위

원을 선정하여 각 당로에 진정하고, 또 귀족원령 및 중의원의원선거법의 개정 실시에 대해서는 1925년 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위원을 도쿄에 보내 의회에 청원함과 동시에 각 방면에서 운동을 전개하였다.

1926년 6월 경성상공회의소에서 갑자기구락부 임시대회를 개최하여 다음 3항을 결의하고 이를 당국에 진언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조선인 구락부원은 토의를 통해 “조선인 중에는 제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이 없는 자가 있기 때문에 참정권 부여에 장애가 있다고 말하는 일본인이 있다. 하지만 재외 불령자(不逞者) 및 일부 학생의 불온행동만으로 조선인 전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인을 최고의 국정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취한다면 조선인의 사상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오늘날의 실정은 조선인이 관리가 되더라도 지방장관이 최고인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전도 있는 학생의 사상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언제까지도 현상을 지속시켜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관직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포자기에 빠져 조선과 일본 양 민족의 복지증진과 동양평화를 위한 일한병합은 일본의 식량정책에 의한 병합이라고 말하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진언 사항 3개조를 골자로 한 진언서의 작성은 임원에게 일임하였지만,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

진언 사항

- (1) 귀족원령을 개정하여 조선귀족에게 일본화족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할 것. 조선 재주자 중 일본과 동일한 자격에 따라 귀족원 의원 직선의 길을 열어줄 것.
- (2) 중의원의원선거법의 별표 중에 경성부, 부산부, 대구부 및 평양부를 더하고, 의원 수는 일본인의 비례에 따라 이를 정할 것. 별도로 피선거의 자격 및 선거방법 등은 조선의 사정에 적합한 법규를 정할 것.
- (3) 조선의 구관(舊慣)에 준거한 지방부락의 자치제도를 정하여 공동 작업을 장려하고 공존공영의 기초를 확립함과 동시에 산업을 발전시켜 국정 참여의 의의를 자각시킬 것.

(하략)

〈출전 : 『高等警察要史』, 慶尙北道警察部, 1934년, 53~54쪽〉